메트로 2015년 1월 21일 수요일 제3140호 www.metroseoul.co.kr

'조선 명탐정 2'로 삼색 변신 이연희 p/18

대한항공 '땅콩 회항' 불구 아시아나 점유율 되레 하락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태로 반사이익을 기대한 아시아나항공의 승객 점유율이 예상치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고공 성장세 속에서 이들과 차별화되지 않는 전략으로 브랜드 포지션과 이미지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0일 한국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항공의 국제선 점유율은 29.2%로 전년 대비 3.4%p(포인트)나 하락했다. 국내선 점유율도 27.3%로 전년보다 3.2%p 내려갔다. 하지만 반사이익을 기대한 아시아나 역시 국제선 점유율이 2012년 23.5%, 2013년 23.0%에서 지난해 21.9%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국내선의 경우 지난해 점유율이 21.4%로 전년보다 불과 0.8%p 올랐을 뿐이다. 이 같은 수치는 과거 '대한항공 아니면 아시아나'라는 우리나라 탑승객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그 반증으로 같은 기간 LCC는 성장세를 지속했다. 국내 LCC 5개사의 지난해 국제선 점유율은 11.5%로 사상 첫 10%를 넘어섰다. <2면에 계속>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줘도 못먹어요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

해운대에 등장한 스파이더맨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내 '영화의 거리'에 등장한 스파이더맨 조형물. 이 조형물은 미국 마블엔터테인먼트가 전 세계에 500개만 설치를 허용한다. /연합뉴스

전략 부재·이미지 하락에 허덕

저가 항공사 고공 성장에 대한항공 '헛발질' 반사이익도 못챙겨

<1면에서 계속>

2010년 2.3%, 2011년 4.3%, 2012년 7.5%, 2013년 9.6% 등 꾸준한 상승세에 이은 결과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7개 국적사의 국제선 승객은 3554만3000명으로 6.9% 증가했다.

국내선 역시 지난해 전체여객 2436만9647명 중 LCC가 1248만8966명을 수송하며 51.25%의 점유율로 사상 첫 50%를 돌파했다.

전년 대비 LCC의 국내선 수송객은 16.0%나 늘었고, 점유율도 48.9%에서 2.3%p 상승했다.

이 기간 제주항공의 여객수는 18.5% 급증하며 13.9%의 점유율로 아시아나를 추격했다.

결국 대한항공이 아니라면 아시아나를 선택했던 소비자가 눈을 돌리면서 불어난 항공시장 파이가 LCC로 고스란히 넘어간 셈이다.

이는 아시아나가 LCC의 공세에 맞서 고급화 전략으로 차별화를 꾀한 대한항공과는 달리 얼리버드 도입 등 할인정책을 펴면서 오히려 포지션이 애매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기존 풀서비스캐리어(FSC)와 LCC의 중간쯤 되는 위치로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해 지불하는 운임 대비 만족도를 고려할 때 선택의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반사이익이 반영된 지난달만 봐도 티웨이항공 49.8%, 진에어 43.0% 등 전년 대비 LCC의 국제선 탑승객 증가가 두드러졌지만 아시아나는 9.0% 느는데 그쳤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 원인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서 찾기도 한다.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등 핵심계열사 인수에 집중하는 와중에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소송전까지 벌이면서, 상대적으로 그룹 경영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최근 금호산업이 "채권단과 합의한 대로 아시아나 주식 2459만주(지분 12.6%, 소송가액 1240억원)를 매각하라"며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주식매각이행 소송에서 박찬구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들 형제는 '금호'라는 상표권 사용을 두고도 다음달 6일 법정에서 맞붙을 예정이다.

김용건 한국신용평가 기업·그룹평가본부 연구위원은 "아시아나는 근거리 여객노선 실적 변동에 의해 수익성이 대한항공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본노선의 부진과 국내외 LCC의 경쟁력 강화 노력 등은 수익성 개선 노력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 그룹의 금호고속 인수전 참여 등 지배구조와 재무부담 측면에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수능 응시료로 출판사 배 채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60억원 가량을 들여 수능문제를 출제하면서도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 권리행사를 수능 제도가 시행된 1993년 이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수능 출제비용 기출문제 저작권료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평가원은 홈페이지에 수능기출문제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권리행사는 하지 않았다. 평가원은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배포·출판·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생색내기' 공지에 불과했던 셈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136조에서 저작권 침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출문제집을 출판하려는 경우에는 저작권 사용 동의를 거쳐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원은 '비영리적 목적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시중에 기출문제집이 범람하면서 연간 100억원의 시장을 형성한 상황. 따라서 평가원이 제대로 된 단속조차 하지 않으면서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된 곳은 대형출판사나 사교육 업체들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수능 출제비용은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응시료와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데 평가원이 저작권 수입을 포기하면서 수능시험에 들어가는 세금지원과 수험료 부담 경감 가능성까지 포기한 셈"이라며 "이것이 평가원을 비롯한 교육당국의 단순한 무능 탓인지, 기출문제집 판매로 이득을 본 업체들과의 커넥션이 있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병형기자 bhsong@

"구두 대신 공문 보내라"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미국 인권단체인 '인권재단' HRF가 대북전단 10만장 기습 살포 관련 기자회견을 연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회원과 활빈단 회원이 손팻말을 들고 대치하고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정부의 공문 요청이 있어야 살포 중단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결혼이주여성 눈물 이제 마를까

부부간 강간 성립 판결

흉기를 들지 않았더라도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 부부간에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성관계의 '강제성'을 판단할 때 언어가 통하지 않고 남편 외엔 기댈 곳이 없는 결혼이주여성의 상황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비슷한 피해를 본 결혼이주여성들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여성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 아내를 강간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2년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20살 이상 어린 아내 B씨를 만나 결혼했다. 이듬해 B씨가 한국에 와 본격적인 신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내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2개월 동안 10여 차례 강제로 성관계했다. A씨는 또 B씨에게 집에서 옷을 입지 못하게 했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몸 사진을 찍기도 했다.

결혼 생활 두 달 후 B씨는 가출했고 여성단체의 도움을 얻어 남편을 고소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지난 7일 A씨에게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판결은 확정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부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 흉기로 아내를 위협하고 성관계한 남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정윤아기자 yoona1@

이르면 이달 중 개각·특보단 인사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조직도 일부 개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기일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이른 시일 내 주요 분야 특보단을 구성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박차를 가하도록 당정 관계와 국정 업무의 협업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공석으로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 등 꼭 필요한 소폭 개각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으로 소폭의 개각과 특보단 구성을 포함한 청와대 개편 등 문건 파문의 수습과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기위한 인적쇄신이 이르면 이달 중 단행될 전망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부처 업무보고의 실천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의 치밀한 실행 계획과 로드맵 작성 ▲협업 ▲국민·현장 중심 ▲다양한 성공사례 발굴·확산 등을 강조했다.

/조현정기자 jhj@

'정신치료 6개월' 현역입대 면제

국방부는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정신과 질환에 대한 현역면제 판정 기준이었던 '최저 치료경력 1년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따라서 징병 검사 전 정신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현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가 정신질환 현역면제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력이 매우 안 좋은 병역자원도 지금까지는 3급(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보충역(4급)으로 분류된다. 근시 -12디옵터, 원시 +4디옵터, 난시 5디옵터 기준 이상으로 시력이 나쁘면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햇빛 과민성 피부염의 4급 판정기준도 치료 병력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에서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정윤아기자

국민은 원숭이?… '13월의 세금폭탄' 미봉책

공제항목·수준 조정과 분납은 내년에나 가능
간이세액표 개정은 '조삼모사(朝三暮四)'

중국 전국시대 송나라에 원숭이를 좋아하는 저공(狙公)이 살았다. 저공은 기르는 원숭이가 많아 먹이 부담이 크자 꾀를 냈다. 원숭이들에게 먼저 "아침에 도토리 세 개, 저녁에 네 개를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주겠다"고 했다. 첫 제안에 불만이던 원숭이들은 두 번째 제안에 만족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저공과 똑같은 말을 했다.

최 부총리는 새로운 연말정산 방식에 대해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원성이 커지자 이날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고 원천징수 기준인 간이세액표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추가납부세액에 대해 분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폭탄 현상과 관련해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러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서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최 부총리가 간이세액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본인 스스로 설명했듯 세액공제 방식에서는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든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든 세금 총액에는 큰 변화가 없다. 최 부총리의 기자회견 직후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비판이 쏟아진 이유다.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의 조정은 내년 초 연말정산에나 적용 가능하다. 추가세금 분할납부 역시 내년에나 가능하다.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가진 티타임 자리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잘하셨어요"라고 묻는 박 대통령의 질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는데 제가 설명을 잘 드렸다"고 답했다.

/뉴시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CCTV 대신 웹카메라 설치하자" 이완구(오른쪽)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린이집 유아 폭행 파문과 관련, 어린이집에 CCTV 대신 웹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2월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CCTV가 이른바 감시 기능이라면 웹카메라는 화상으로 같이 공유한다는 개념이라 조금 다르다"며 "비용도 조금 싸다"고 했다. /연합뉴스

최경환 보완책에 여당까지 '한숨'

여 "정부, 표 떨어지는 짓만 하고 있다"
야 "연말정산 천인혈 기업감세 만성고"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해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했다. 여야가 따로 없었다. 다만 새누리당은 여당이라 대놓고 드러내지는 못한 채 속병만 앓는 분위기다. 최 부총리의 보완책과는 별도로 근본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는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 부총리를 춘향전의 변사또에 빗대기도 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옛말에 줬다 뺏으면 엉덩이에 뿔난다는 말이 있다"며 "이번에 나온 국민 목소리가 이런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 당직자는 "정부가 표 떨어지는 짓만 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이니 참고 있지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원내 관계자도 있었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사실 모호하기 그지없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은 당장 연말정산 제도를 손볼 구제책은 없는 만큼 일단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22일 이후 문제점을 분석해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기존 정부 정책과 다른 것은 손볼 필요가 있다. 가족 공제 같은 경우 1인당 얼마로 할 게 아니라 아이 1명에 얼마, 둘째는 그의 2~3배씩 줘야 한다"며 부양가족공제 확대 방침을 밝혔다.

김경협 새정치연합 원내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말정산 천인혈 기업감세 만성고(직장인 연말정산은 천 사람의 피요, 기업에 깎아준 세금은 만백성의 기름이다)"라고 꼬집었다. 춘향전에서 암행어사 이몽룡은 변사또의 생일잔치에서 '금준미주 천인혈(金樽美酒 千人血) 옥반가효 만성고(玉盤佳肴 萬姓膏)'라는 시를 지었다. '금잔의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쟁반의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는 의미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직자뿐만 아니라 의원들까지 개별적으로 비판을 쏟아냈다.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당 차원에서 현재 15%인 세액공제율을 5% 포인트 올려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수 추계를 엄밀히 따진 다음 세액공제율을 15%에서 좀 더 올려 봉급생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세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법인세 정상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jhj@

예고된 '세금폭탄' 대란

기자 수첩
조 현 정
<정치부 기자>

13월의 세금폭탄으로 국회가 시끄럽다.

세금을 돌려받기는 커녕 직장인 가운데 상당수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가 연말정산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지난주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도 하루 만에 정치권에서 각종 대책을 쏟아낸 바 있다.

이번 정치권의 어수선함을 보면서 차분하게 연말정산 문제를 미리 대비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지난해 8월 납세자연맹이라는 시민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엉터리 세수추계로 직장인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런데 한 두 곳의 언론에서만 가볍게 다뤘고 이슈가 전혀 되지 않았다.

시민단체의 의례적인 보도자료일 뿐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만약 국회의원 누군가가 그 자료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미리 준비를 하고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다면 그 누군가는 지금 상황에서 뛰어난 분석력을 가진 정치인으로 평가받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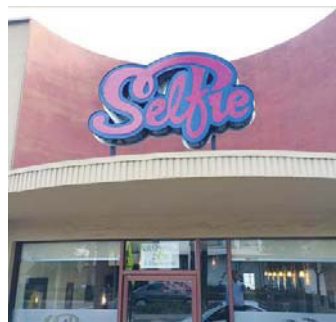
물론 아무리 크게 떠들었어도 언론에선 연말정산 폭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제대로 다뤄주지 않았을 확률이 더 높긴 하다. 납세자연맹이 지난 여름부터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다.

정치·언론은 '시의성'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비하는 '예측력'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당장 벌어지는 일이 아니더라도 큰 이슈가 될 문제에 대해선 앞서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성숙한 정치인을 기대한다.

'셀카 열풍' 미국까지
LA에 셀카스튜디오 첫선

한국에서 시작된 '셀카 열풍'이 미국에도 상륙했다.

LA데일리뉴스는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가브리엘 밸리 지역에 있는 아카디아 시에서 '셀피 사진 스튜디오'가 최근 문을 열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웬만한 결혼식 연회장 규모의 이 스튜디오에는 각종 소품과 의상들이 준비돼 있다. 창이 없는 대신 사방이 거울로 채워져 있다. DSLR 카메라와 영화 스튜디오에서 볼 수 있는 '우산 조명', 32인치 컴퓨터 모니터 등을 갖춰 무선 리모컨을 활용해 사진을 자유자재로 찍는 것이 가능하다. 사진은 즉석에서 인화하거나 USB 드라이브에 저장해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릴 수도 있다.

이 스튜디오 이용자는 한국·중국 등 아시아인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현지 백인들도 자주 찾고 있다고 LA데일리뉴스는 전했다. /이국명기자 kmlee@

/LA데일리뉴스 제공

나도 니스만 1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소재 마요 광장의 정부청사 밖에서 대통령의 테러조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던 알베르토 니스만 검사의 변사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민들이 '나는 니스만' 등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백곰 모피는 부르는 게 값?

metro Russia

루블화 폭락으로 2배

최근 러시아에서 백곰 모피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19일 메트로 모스크바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에 수입이 허용된 캐나다산 백곰 모피의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다. 이 때문에 러시아 내에서 포획이 금지된 백곰 거래가 암시장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 세계야생동물기금협회(WWF)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백곰 모피의 인터넷 거래가격이 60만 루블(약 1000만원)에서 150만 루블(약 2500만원)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WWF 관계자 빅토르 니키포로프는 "백곰 모피의 가격 인상은 루블화 폭락과 관계가 있다"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백곰 박제와 모피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암시장으로 모여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불법적으로 백곰 모피와 박제를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 일곱 곳을 적발했다"며 "불법 포획과 거래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경찰은 연방법에 따라 2014년부터 밀렵꾼과 불법 모피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모피 거래를 하거나 소장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메트로 모스크바는 전했다.

/레기나 우짜쉐바 기자·정리 이국명기자

테러 당한 샤를리에 비난?

미국 언론·교황, 모욕의 자유 비판

"표현의 자유가 모욕의 자유는 아니다."

프랑스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러시아 이슬람 자치공화국 체첸의 수도 그로즈니에서 열린 시위에 체첸 주민뿐 아니라 북캅카스의 다른 지역 무슬림까지 가세하면서 100만명 이상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알라흐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한 뒤 시내 무슬림 사원에서 기도회를 열었다.

인기 아랍권 뉴스 웹사이트인 '아라비21'이 반이슬람 정서가 확대하고 있는 서방을 풍자하는 만평을 게재했다. /아라비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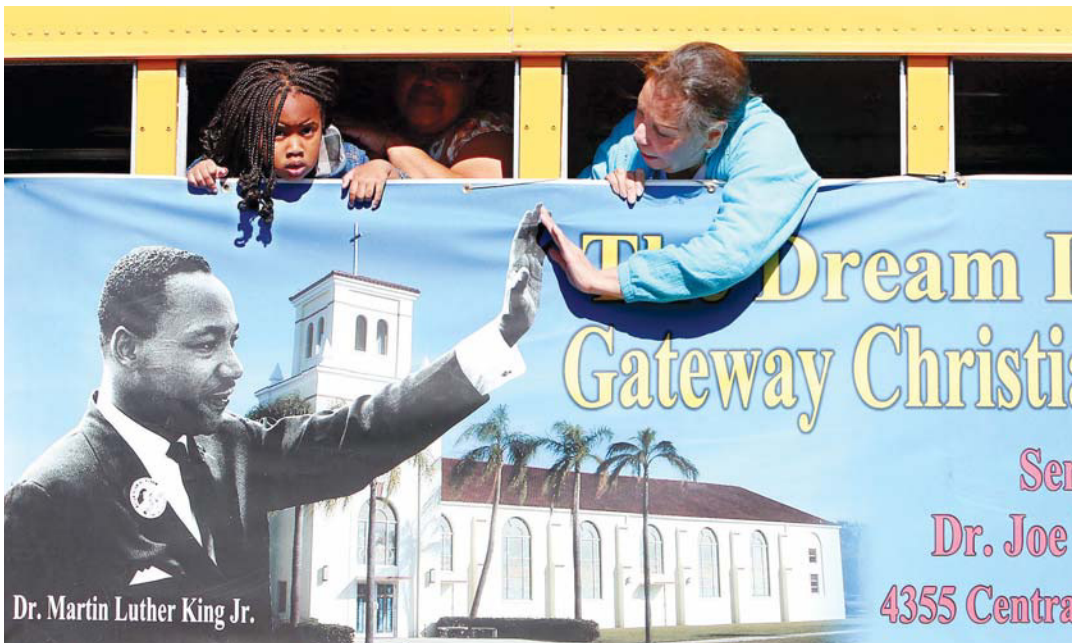
람잔 카디로프 체첸공화국 정부수장은 집회 연설에서 "서방 언론인과 정치인들이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거짓 구호 아래 무슬림의 믿음을 모욕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서방에서도 샤를리 에브도의 이슬람 풍자가 도를 넘어섰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해외 순방 중이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타인의 신념을 유희의 대상으로 삼거나 타종교를 조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의 미국 언론도 "샤를리 에브도 만평은 이슬람교도에 대한 불필요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언론의 표현 자유는 존중해야하지만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은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 이유다.

한편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프랑스 대사관과 문화원은 이슬람 교도들의 규탄 행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팔레스타인 가자시티에 있는 프랑스 문화원에는 주말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 200여 명이 모여 시위를 벌인다. 이들은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들고 프랑스 국기를 불태우기까지 한다. 세네갈의 경우 샤를리 에브도뿐 아니라 무함마드 만평을 실은 프랑스 좌파 일간지 리베라시옹의 판매를 금지했다.

앞서 샤를리 에브도는 이슬람을 희화화하는 만평 게재로 이슬람 극단 무장단체 IS의 습격을 받았다. 이 잡지는 사건 이후에도 무함마드를 만평에 다시 등장시켜 전세계적 화제를 모았다. 샤를리 에브도 최신호는 21일 발간될 예정이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킹 목사님 하이파이브 19일(현지시간)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 퍼레이드 행사가 열린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에서 한 흑인이 버스에 매달린 그림 속 킹 목사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이날 미국 전역에서는 최근 경찰의 폭력에 희생된 흑인들을 기리는 집회·시위도 잇따랐다. /AP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 해외순방 강행군

여름 남미, 연말 아프리카 방문 예정

프란치스코(사진) 교황이 연말 아프리카를 첫 방문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9일(현지시간) 필리핀 방문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프리카 방문은 현지 날씨 상황 때문에 올해 말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에볼라 탓에 조금 연기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가톨릭 교회의 낙태와 인공피임법 반대 입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밝혔다. 교황은 "좋은 가톨릭 신자가 되기 위해 토끼처럼 출산을 많이 하란 의미가 아니다"며 "낙태나 인공 피임법 외에 가톨릭 교회가 인정하는 출산 제한법이 많다. 책임질 줄 아는 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교황은 연초부터 해외 순방 강행군을 펼치는 중이다. 최근 스리랑카와 필리핀을 순방한 데이어 18일에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대규모 미사를 열기도 했다. 오는 7월에는 볼리비아와 파라과이, 에콰도르 등 남미 3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장윤희기자

IS추정 대원 일본인 살해 협박 동영상 충격

아베 총리 "인명 협박 용납 어렵다"

IS 대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일본인질 협박 동영상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일본 언론은 이 사실을 특보로 보도했고,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관저 대책실을 설치하고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동영상에는 IS대원으로 보이는 복면 괴한이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인질 두 명과 함께 등장, 72시간 안에 몸값으로 2억 달러(약 2180억원)를 지불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붙잡은 일본인 인질을 살해하겠다고 밝혔다. 인질은 지난해 8월 IS에 억류된 유카와 하루나씨와 프리랜서 언론인 고토 겐지씨로 전해졌다.

중동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위해를 가하지 않고 즉각 석방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며 인질의 인명을 중시하는 대응을 정부에 지시했다. 이어 "인명에 대한 협박은 용납하기 어렵다. 국제사회는 단호하게 테러에 굴하지 않고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재건축 연한 40→30년으로

안전 진단에 '층간소음' 등도 포함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또 안전진단에 구조안전성 외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신설, 층간 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등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최대 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부산·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10년 단축된다.

1980년대 후반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과 같은 주민 불편에도 불구하고 연한에 걸려 재건축 추진을 못했지만 이번 조치로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시에서는 1987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부터 2~10년 재건축 연한 단축 혜택을 보게 된다.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때 실시하는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 2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인 'E 등급'이 나오면 다른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는 층간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전체 안전진단 기준에서 주거환경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향할 계획이다. 다만, 주거환경 부문 비율이 강화되더라도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여전히 재건축이 가능하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건설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가구수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5%포인트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지역별로 전체 가구수의 5~20%(수도권 8.5~20%, 지방 5~17%), 연면적 기준은 3~1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이를 지자체 등 공공이 인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기준이 폐지되고 가구수 기준도 가장 높은 비율을 5%포인트씩 낮춰 수도권은 전체 공급 가구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만 확보하면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현재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하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낡은 저층주거지의 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채광창 높이 제한 기준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해 층수 증가 없이도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게 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market index <20일>

코스피 1918.31 (+15.69)

코스닥 582.27 (+4.33)

금리(국고채 3년) 2.03 (−0.01)

환율(원·달러) 1087.00 (+8.40)

금투협 회장에 황영기

황영기(사진)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투자협회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황 신임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 3층 불스홀에서 164개 회원사 중 161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총회 1차 투표에서 50.69%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다른 두 후보인 김기범 전 KDB대우증권 대표는 39.42%, 최방길 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대표는 8.37%의 표를 각각 얻었다. 당초 후보가 3명이어서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는 후보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황 신임 회장은 서울고,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을 거쳐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KB금융지주 초대 회장을 지낸 바 있다. 금투협 신임 회장의 임기는 내달 4일부터 오는 2018년 2월 3일까지 3년이다.

/이보라기자 purple@

신한·씨티·국민銀 '여신심사 부실'

수백억대 손실 적발

신한, 국민, 씨티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대출 취급 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9월말 부실 대출로 약 215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2013년 재무제표와 최대주주 자금력이 의심되는 A사에 경영리스크 전반에 문제없다며 대출을 해줬다.

같은해 해외매출채권을 건당 평균 73만~87만달러에 매입하며 매입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등 추가 확인 절차를 거지지 않은 채 승인했다.

국민은행은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가액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해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13년 B기업의 파주 공장을 담보로 280억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은 공장 내 중고 기계장치 등을 신규 장비로 평가해 공장의 가치를 219억3800만원으로 평가했다.

이밖에도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시설 자금 대출을 취급하며 담보취득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 결과 대출금 8억원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했다.

하나은행도 2008년과 2009년 각각 5000만원을 대출하면서 심사를 소홀히 해 8400만원을 대손상각 처리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롯데건설, 안전경영 선포식 개최 롯데건설이 최근 서울 서초구 The K-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안전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는 '안전경영 선포식'을 개최한 가운데, 이병준 현장소장이 임직원을 대표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롯데건설 제공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시행

앞으로 단종보험대리점 설립을 위한 요건이 완화된다. 보험상품의 이미지광고는 규제가 강화되고, 철새·먹튀 설계사 선별을 위한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위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단종보험대리점 출현을 위한 규정 정비 ▲보험상품의 이미지광고 요건 규정 신설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규정 등이다.

종보험대리점과 단종보험설계사의 경우 본업과 연계된 1~2종의 보험만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 등록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단종보험대리점이란 여행자보험 등 단종 상품만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이 대리점은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 모집이 가능하다. 세부 영위 종목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한다.

1분 내에 보험상품의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하는 이미지광고는 가격·보장 등 상품의 주요 특징 안내 시 소비자를 위한 설명이 필요하다. 주요 특징을 3회 이상 지속·반복적으로 안내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만기환급특약에 가입해야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광고에서 만기환급에 대한 음성 안내 시 해당 특약에 가입해야 함을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을 통해 철새·먹튀 설계사 선별도 선별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설계사의 ▲보험회사 등 소속별 등록기간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이력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건수 ▲수당환수 유무 등이 등재·관리한다.

보험상품 이미지광고는 20일, 단종보험관련 규정은 오는 7월 7일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단종보험대리점이 출현해 소비자가 매장에서 편리하게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미지광고도 규정을 명확히 해 보험회사의 법적 리스크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신한은행, '미얀마 교육시설' 지원

신한은행은 20일 미얀마 흘레구에 위치한 꺼양초등학교와 사칸지초등학교에서 '신한은행-KOICA 미얀마 흘레구 농촌개발사업'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글로벌 진출지역에 대한 사회공헌 지원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KOICA에서 진행중인 '흘레구 농촌개발사업' 중 교육시설 개선사업에 민관협력으로 참여했으며 굿네이버스는 사업수행을 위한 협력파트너로 동참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신한은행은 미얀마 흘레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2곳에 학교 교사 1개동과 화장실 신축, 노후시설 개보수, 교육기자재 등을 지원했다.

사업 후원금은 '신한가족만원나눔기부'로 이뤄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 차원과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프로그램을 운영해 지난해 의료, 문화 등 140여개의 사회복지단체에 후원을 했다"며 "올해도 아동과 교육을 시작으로 나눔문화확산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3월 미얀마 수도 양곤에 대표사무소를 개설해 현지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상담과 국내연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신한은행 홍석우 미얀마 사무소장(셋째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KOICA 양곤 대표사무소 남형권 소장(셋째줄 왼쪽에서 네 번째), 굿네이버스 최민호 지사장(셋째줄 왼쪽에서 세 번째)과 미얀마 현지 관계자와 꺼양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中企대상 설 맞이 특별자금 풀어

은행권 "최대 3조 지원"

은행권이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자금을 풀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서민층 등을 대상으로 설날특별자금대출을 내놨다.

이를 통해 경영자금 압박을 덜어주는 한편 신규와 만기연장으로 유동성을 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설날 특별자금을 마련했다. 오는 3월 6일까지 지원되는 자금은 중소기업 원자재 결제와 임직원 급여,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3억원까지 공급된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필요운전자금 산정을 생략키로 했다. 또 할인어음과 기업구매자금 등 결제성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여신 2조원을 지원한다. 대출은 설명절 전후 45일간 지원되며, 신규대출과 해당기간 만기도래하는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도 포함된다.

금리는 설명절 특별우대금리 0.2%p를 포함해 최대 1.3%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안수 기업고객부장은 "최근 국내외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자금난과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어느 해보다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설명절 중소기업여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은행들 역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위해 두팔을 걷고 나섰다.

이들 은행은 각 지역에 기반한 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자금 수요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BS금융그룹 부산은행은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해 'BS일거半득 나눔대출'을 출시했다.

모두 5000억원 규모로 지원되는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상품은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월 19일까지 실시된다.

특히 최근 3저현상(저성장, 저환율, 저물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울·경 지역의 핵심 동력산업인 조선과 기계, 금속, 자동차와 석유화학 업종 등의 영위 기업들을 최우선 지원한다.

또한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술형 제조기업에도 긴급 유동자금을 제공한다.

대출은 업체에 따라 산출금리에서 최대 1.1%까지 영업점장이 감면할 수 있게 했다. 경기민감 업종 제조업체들에게도 한도제한 없이 일반기업체들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구성됐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年 10만원에 프리미엄을 누린다" IBK기업은행은 20일 연회비 10만원으로 실용적인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BLISS.5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일반카드와 프리미엄 카드의 중간 단계인 '매스티지(Masstige)'카드로 VVIP 카드에 비해선 저렴한 연회비를 내면서도 특급 호텔 식사와 공항 라운지 이용 등 고급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기업은행 제공

아파트 경매 최고 인기층은 14층

"1층 보다 못한 5층"

지난해 부동산경매에서 낙찰된 15층 이하 아파트 물건 중 가장 인기가 좋았던 층은 14층으로 나타났다.

20일 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14층에 대한 입찰경쟁률이 8.15대 1로 가장 높았다.

14층 아파트 물건은 2013년에도 6.99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전체 층 중 가장 인기가 좋았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경쟁자가 평균 1명 이상 늘어난 셈이다.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층은 12층으로 평균 8.06명이 입찰에 참여했고 이어 11층 8.05대 1, 9층 7.17대 1, 7층 7.16대 1 순이다.

전통적으로 로열층이라 불리던 7~11층보다 꼭대기 층에 가까운 물건이 인기가 높았던 이유에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시야와 채광을 중시하는 아파트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15층 이하 아파트 중 경쟁률이 가장 낮은 층은 4.93대 1을 기록한 5층으로 나타났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에서도 1층보다 5층 아파트 물건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층 아파트 낙찰가율은 79.8%로 유일하게 80%를 밑돌았다. 같은 기간 1층 아파트 낙찰가율은 81.6%를 기록했다. /김학철기자

아파트 층수별 입찰경쟁률

2014년, 전국 소재 15층 이하 아파트 기준

청약통장 붐… 지난해 136만명 증가

청약제도 개편·분양시장 호조세 영향

지난해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폭이 2010년 이래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1757만6679명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13년 대비 136만6857명 증가한 수치다. 연간 증가 수는 2010년 89만8877명, 2011년 6만7300명, 2012년 2만6818명, 2013년 130만4765명을 보여 지난해가 최근 5년간 증가폭 중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지방이 97만9868명으로 수도권 38만6989명보다 약 2.5배 많았다.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경기도가 22만2950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부산 16만8695명, 대구 15만1432명, 경남 12만9236명, 서울 11만7343명 순이다.

2013년과 지난해 가입자 수 증가폭이 130만명을 넘어선 데는 ▲신규·미분양 주택 5년 간 양도세 면제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폐지와 적용비율 완화 ▲유주택자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 부여 등 2013년 4·1 부동산대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는 ▲수도권 1순위 요건 완화(2년→1년) ▲소형 저가주택 기준 변경 ▲입주자 선정절차 단순화 등 청약제도 개편이 증가폭 상승을 이끌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Music : MARTIN DOEPKE Book : ANDREA FRIEDRICHS & HANS HOLZBECHER Lyrics : ELKE SCHLIMBACH & GRANTSTEVENS Orchestrations : HUMMIE MANN & MARTIN DOEPKE
Producer Original Production : ANDREA FRIEDRICHS Worldwide General Management : WILLEM METZ MANAGEMENT

우리의 혁명은 숲에서 시작된다

DAS MUSICAL

ROBIN HOOD

로빈훗

2015. 1. 20. 2PM 2nd Ticket Open

2015.1.23 - 3.29 · 디큐브아트센터

유준상 서영주 이건명 홍경수 엄기준 조순창 박진우 박성환 규현 양요섭 서지영 김아선 김여진 다나 외

|프로듀서|김선미 |연출|왕용범 |음악감독|이성준 |안무|서병구 |조명디자인|민경수 |무대디자인|서숙진 |음향디자인|권도경 |영상디자인|송승규 |의상디자인|한정임 |분장디자인|양희선 |소품디자인|김상희

|주최| SBS |투자| 하나투어 ISU 이수창업투자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KIBO 기술보증기금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YES24.COM 티켓 (1544-6399) 하나 Tree 티켓 (1566-6668)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CLIP service (1577-3363) |홍보| SHOWHOLIC

자산운용·보험사, 증권사 인재영입 열풍

한화·대신자산, 잇따라 인력 스카우트 나서

연초 자산운용사와 보험사 등이 증권회사의 인재를 영입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잰 걸음을 내딛고 있다. 증권사 노하우를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부진했던 분야에 접목해 실적 개선을 꾀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자산운용은 신규 헤지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설립 시기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쯤으로 목표하고 있으며 초기자금(시드머니)은 1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진다.

한화자산은 이를 위해 지난달 예규창 헤지펀드운용팀장을 영입했다.

예 팀장은 한화투자증권에서 에쿼티운용팀장과 주식운용본부장 등을 두루 거친 경력을 살려 한화자산에서 새로 내놓는 펀드의 운용을 담당할 전망이다.

대신자산운용은 최근 유진투자증권의 유명 애널리스트인 김미연씨를 새로 신설한 리서치본부의 수장으로 영입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 리서치센터를 별도로 꾸리는 곳은 삼성자산운용이나 KB자산운용 등이 있다.

대신자산 역시 리서치본부를 만들고 증권업계 스카우트를 통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던 정통 펀드 분야를 키운다는 방침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유통과 소비재 부문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고 매해 대학 입시전략 자료를 내놔 학부모들의 인기를 끌었다. 대신자산은 그의 장점을 십분 활용해 여성 소비자와 중국 등지에 초점을 맞춘 '대신 아시아 퍼시픽 컨슈머펀드'를 1분기 중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보험업계도 증권사 출신을 영입하고 나서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관심을 모은다.

메리츠화재는 최근 김용범 메리츠종금증권 사장을 신임 대표로 맞이했다.

김 사장은 메리츠종금증권의 대표를 3년여간 맡으면서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을 이뤄낸 성과를 손해보험 업계에서 다시 한 번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김 사장은 메리츠종금증권의 기존 주력 분야인 기업금융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약점으로 지적돼 온 리테일 부문의 성장을 일궈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메리츠화재에서도 개선이 요구되는 손해율 분야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전망이다.

김 사장이 손보업 계열사로 옮겨가면서 메리츠종금증권은 최희문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바뀌었다.

이종 분야의 인사를 끌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새 인력 보강으로 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은 증권업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HMC투자증권은 WM(웰스매니지먼트) 사업본부장으로 현대증권 IB담당과 펀드온라인코리아 마케팅본부장 등을 거친 한석씨를 영입했다.

HMC투자증권은 한 신임 본부장을 통해 지금까지의 개인고객 위주 영업에서 벗어나 법인고객 등 신규 수익원을 창출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고심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자산관리 부문에 역점을 두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3중고 한국 경제, 회복추이 관망"

올해 한국 경제의 회복은 저성장과 엔저, 유로존·러시아 불안의 3중고에 직면한 가운데 추이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박석현·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반기 증시 전망 및 투자전략'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커 한국 증시의 회복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박 연구원은 "외부 변수 요인들이 좋아져야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경제의 회복이 다른 국가들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진다면 올해 '상저하고' 경기패턴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현재 한국 경제는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과, 엔저, 유로존 불안과 러시아 금융 위기 등 3중고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연초 글로벌 금융시장은 국채 장기물 등 안전자산 상품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올해 세계 경기가 회복과 둔화의 갈림길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상저하고 패턴을 제시한 박 연구원은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이 제조업 부진을 겪고 있으므로 미 경제마저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위축된다면 '상저하저' 경기패턴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유망 종목으로는 배당주와 IT주가 꼽혔다.

/이보라기자 purple@

코스피, 1,920선 육박… ECB 기대감에 이틀째 상승 코스피는 20일 유럽중앙은행(ECB) 기대감으로 전날보다 15.69포인트(0.82%) 오른 1,918.31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우수 자문인에 IBK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코넥스시장의 우수 지정자문인으로 IBK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증권사는 상장기업 발굴 실적과 유동성 제고 노력, 공시 지원 실적, 기업 분석보고서 발간 실적 등을 인정받았다.

이번 우수 자문인 선정은 ▲코넥스 시장의 양적·질적 성장 기여도(상장실적, 거래활성화 노력 등) ▲지정자문인의 의무 이행도(유동성 공급의무, 공시지원 실적, 기업설명회 지원 등) ▲기업 인큐베이팅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종합평가했다.

거래소 측은 "자문인 실적을 적절히 평가해 코넥스 조기안착 노력을 격려하고 자문인 역할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대신증권, 주식 및 파생연계증권 7종 판매 대신증권이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4종과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DLS) 2종,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ELB) 1종 등 총 7종의 상품을 오는 23일까지 판매한다. 이들 상품은 코스피200과 S&P500, HSCEI, 유로스톡스50, 금·은가격, WTI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대신증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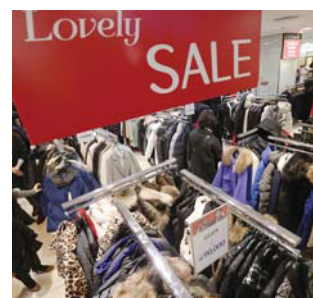
유통株, 올해도 소비침체로 먹구름

중소형 유통주는 상대적으로 양호할 듯

국내 유통주들이 소비 침체와 더딘 업황 회복세로 올해도 힘든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민간소비가 부진한 데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수출도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로 대표적인 유통주 '롯데쇼핑'은 올 들어 잇따라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1월 41만원대를 기록했던 주가는 올 1월 20일 현재 24만원대로 추락했다.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배 이하로 떨어졌다.

박종렬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롯데쇼핑에 대해 "최근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기업가치 대비 주가) 매력이 제고됐다"면서도 "부정적인 영업실적이 지속되고 있어 상승 반전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유통주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소비 침체' 때문이다. 소비 침제가 실적 악화와 주가 하락으로 확대되고 있다.

소매시장은 3년째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주요 백화점들이 진행한 신년 세일 실적도 한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신년 세일 매출 신장률(롯데 10.6%·현대 6.1%·신세계 3.8%)과 비교하면 실적이 저조한 수준이다. 롯데백화점은 이달 2일부터 세일 종료를 하루 앞둔 17일까지 신년 세일 매출이 지난해보다 기존점 기준 0.5%(전점 기준 8.1%) 증가했다. 현대백화점의 최종 세일 매출(1월 2~18일)은 1.2%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 세일 매출도 지난해와 비교해 0.9% 증가에 그쳤다.

소비자들의 경기판단도 더욱 어두워졌다.

한국은행의 지난해 12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경기판단 소비자심리지수(CSI)는 3개월 연속 하락하며 71까지 떨어졌다. 지난 2013년 2월(69) 이후 최저 수준이다. 향후경기전망 CSI는 지난해 8월(100)을 단기 정점으로 넉달째 내리막을 타며 2012년 12월(85) 이후 가장 낮은 85까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유통주의 전반적인 흐름은 올해도 부진하겠지만, 중소형 유통주는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이라며 "유통주 가운데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민지기자 minji@

'범LG家' 미래성장 동력 쟁탈전

미래 먹거리 찾다보니 사업 영역 침범 불가피 한 듯

LG, GS, LS 등 '범 LG家' 기업들이 집안끼리 '신사협정'을 맺어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겠다던 불가침 조약이 최근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계 전체가 미래성장 동력에 집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이들 기업 간에 암묵적으로 지켜졌던 '신사협정'이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범 LG가'의 '신사협정'은 지난 2003년과 2004년 LS그룹과 GS그룹 등으로 LG와 사업영업을 나눠 분가하면서 서로 주력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에 진출하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암묵적인 합의를 뜻한다. 암묵적인 합의인 만큼 협정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LG는 전자와 화학에 주력하고 GS는 정유와 유통, LS는 전선, LIG는 금융, 희성은 전자부품 등에 각각 특화된 그룹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올 초 '범 LG가'의 움직임을 보면 신사협정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LIG 방위산업 중심 재편

LIG그룹은 그룹의 모태이자 전체 매출의 80%를 담당했던 LIG손해보험을 정리하고 방위산업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선언했다. 기존 금융과 제조·서비스의 투 트랙 사업 구조에서 제조·서비스의 단일 구조로 재편한 것이다. LIG는 지난해 말 LIG손해보험·투자증권을 KB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LIG그룹의 사업은 방산업체인 LIG넥스원과 IT 서비스 회사인 LIG시스템, 유통서비스업체 휴세코 등 3개사가 주축이 된다.

남영우 사장은 "일단 경쟁력이 있는 방위산업에 집중해 첨단 기술력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2018년까지 정밀전자와 IT 분야 연구인력을 2500명을 추가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이들 업체들과 공조 부문 등을 담당했던 LIG손보가 넘어가면서 영역을 외부로 돌릴 방침이다. LIG넥스원의 경우 국내 선도업체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해외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결국 LG CNS(SI)와 LG전자(공조) 등을 가지고 있는 범 LG가와 경쟁할 수밖에 없다.

◆ 희성그룹 한화 포장재 사업 매각

희성그룹은 지난 15일 한화그룹의 석유화학 계열사인 한화폴리드리머의 일부 사업부를 매각했다. 트럭커버 광고재 등을 만드는 한화폴리드리머의 코팅막재 사업부는 국내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필름시트 사업부는 식품이나 세제의 포장재를 만든다.

그러나 희성그룹이 대규모 창고 천막 소재로 사용되는 타포린 사업에 집중할 경우 LG하우시스와 경쟁을 피할 수 없다. 현재 LG하우시스는 폴리비전이라는 업체를 통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형태로 타포린 사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희성그룹이 한화폴리드리머를 인수해 LG화학과 협업하거나 LG하우시스에 납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밥그릇 싸움으로 번질 가능이 농후하다.

◆ 차세대 성장사업 경쟁

LG그룹이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주목하고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는 에너지솔루션과 전기차, 스마트카 부품도 GS와 LS그룹과 맞물리고 있다.

LG는 최근 서울 마곡지구에 대규모 R&D 단지인 LG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해 미래에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에너지 솔루션 분야는 고효율 태양광 모듈과 에너지저장장치(ESS), 고효율 전력 변환 장비, 빌딩관리시스템(BM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에너지를 접목해 에너지의 생산에서부터 저장, 효율적 사용에 이르는 전반을 다루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GS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개발과 에너지 부문과 맞물린다. GS는 지난해 2월 에너지 업체인 GS E&R(옛 STX에너지)를 사들였다. 태양광, 열병합 발전 등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또 친환경 자동차부품의 경우 LG화학의 전기차배터리 세계 1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LG전자·LG디스플레이·LG이노텍 등이 전기자동차·스마트차 등 차세대 자동차 산업을 위한 각종 부품과 솔루션 개발사업을 육성 중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자동차 부품사업 역시 LS와 겹친다. LS는 전기자동차 부품 사업과 자원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LG 관계자는 "재계 전체가 미래성장 동력에 집중하다보니 그룹 간 사업이 겹칠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최근 일본 통신회사 소프트뱅크가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것도 일맥상통하다"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LG화학, 무기 나노소재 권위자 '이진규 교수' 영입

차세대 신사업으로 중점 연구 중인 무기소재 연구 강화위해

LG화학이 무기 나노소재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서울대 '이진규 교수(사진)'를 영입하고 중앙연구소 연구 역량도 강화하는 등 미래 신기술 확보를 위한 R&D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화학은 최근 미래 준비를 위한 중점 연구분야인 무기 나노소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이진규 교수(52세)를 수석연구위원(전무급)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서울대학교 화학부 정교수로 LG화학은 이 교수의 영입으로 무기소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교수는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슈록(Richard R. Schrock) 교수의 지도아래 무기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MIT 학제간 융합연구그룹(Interdisciplinary Research Group)에서 포스트닥터 과정을 거쳤다.

이후 1998년부터 서울대학교 화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무기나노소재 합성 기술과 나노 입자 표면 개질과 분산 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해온 무기 나노소재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다.

이를 입증하듯 지금까지 106건의 학술논문을 발표했으며, 100여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교수는 2013년 안식년 기간 동안 LG화학과 연을 맺고 대전의 중앙연구소(당시 CRD연구소)에서 연구원들과 기술적 이슈에 대한 토론과 협력 연구를 적극 수행한 바 있다.

당시 LG화학 기술연구원의 자율적인 연구 분위기와 R&D에 대한 기업의 전폭적인 지원 등 LG화학의 기업문화에 호감을 갖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서울대 종신교수직을 떠나 기업 연구책임자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

이 교수는 오는 2월부터 LG화학 중앙연구소에서 전무급에 해당하는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한다. 무기나노소재 기반기술 연구책임자로서 신개념 전지소재와 유·무기 하이브리드 복합체 등 무기 소재 분야의 신규 과제 발굴과 더불어 다양한 기존 연구과제에 대한 자문 역할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LG화학 CHO(최고인사책임자) 김민환 전무는 "이번 이진규 교수의 영입으로 LG화학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무기소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속도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R&D를 최우선시하는 LG화학만의 조직문화 속에서 학계 최고의 지성이 마음껏 실력을 펼쳐 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성공 사례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연구소' 역량 강화

이와 함께 LG화학은 신사업 개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기존 'CRD(Corporate R&D)연구소'의 명칭을 '중앙연구소'로 변경하고 인적, 물적 자원 투입도 늘린다.

중앙연구소는 기초소재, 정보전자소재, 전지 등 LG화학의 3개 사업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과 신사업 발굴을 위한 미래 신기술을 개발하는 LG화학의 핵심 연구소다.

연구소는 점착, 코팅, 공정 시뮬레이션과 분석 기술 등 핵심 기반 기술을 강화해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무기소재, 친환경·에너지 소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등 첨단 소재 관련 연구를 통해 미래 신사업 관련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종훈기자 fun@

19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중동·아프리카 지역 LG이노페스트 행사에서 박석원 LG전자 해외영업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LG 이노페스트' 개최… 마케팅 강화

100개국 1500명 파트너 만나

LG전자가 중동·아프리카·유럽·아시아 등 100개국의 1500여 명의 파트너를 만나며 지역별 주요 고객 파트너십 강화에 나선다.

LG전자는 이달 중동·아프리카와 유럽 지역을 시작으로 2월 아시아, 3월 중국 지역에서 지역 밀착형 전략 제품 발표회 'LG 이노페스트(InnoFest)'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2013년 시작한 LG 이노페스트는 '이노베이션(Innovation, 혁신)'과 '페스티벌(Festival, 축제)'의 합성어다. '더 나은 고객의 삶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LG전자의 차별화된 제품, 기술·사업전략을 소개한다.

지난 19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는 중동·아프리카 지역 LG 이노페스트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박석원 LG전자 해외영업본부장, 차국환 LG전자 중아지역대표 등 임직원과 주요 거래선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LG전자는 이 발표회에서 'CES 2015'에서 TV 부문 최고 제품상을 받은 '울트라 올레드 TV'를 전시했다. 이 제품은 자체 발광 소자 특성에 기반해 높은 명암비, 빠른 응답속도, 넓은 시야각 등을 갖춘 차세대 TV다.

이날 행사에서 LG전자는 주요 거래선을 대상으로 국가별 우수 마케팅 사례를 공유하고 이병남 LG 인화원 사장의 '시장과 경영마인드' 발표도 진행했다.

LG전자는 같은 장소에서 22일부터 유럽 지역 LG 이노페스트도 연다. 박석원 해외영업본부장, 나영배 유럽지역대표 등 임직원과 주요 거래선 관계자, 유럽 영상음향협회 EISA 회장 조르즈 곤살베스(Jorge Goncalves), 외신 기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현대차 정의선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는?

현대차 지배하는 현대모비스 지분 확보가 관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외아들 정의선 부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블록딜(시간외 대량 거래) 시도를 계기로 현대차그룹의 3세 승계 구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비스 지분매각을 위한 1차 시도는 무산됐다. 하지만 이는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해소와 경영권 승계라는 두마리 토끼잡기 성격을 갖고 있다. 정 회장 부자로서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카드인 셈이다.

하지만 방법이 이것 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정의선 부회장으로서 가장 좋은 것은 중핵 그룹사인 현대차의 지분을 충분히 사들이는 것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현대차의 시가총액(우선주 포함)은 19일 종가 기준 46조427억원에 달한다. 정 부회장은 지분이 거의 없는 상태다.

대신 현대차를 지배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하면 된다. 이번 블록딜 시도도 이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비스 주식 매각대금으로 모비스 지분을 사들이는 구상이다.

이런 방식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예 글로비스와 모비스를 합병하는 길로 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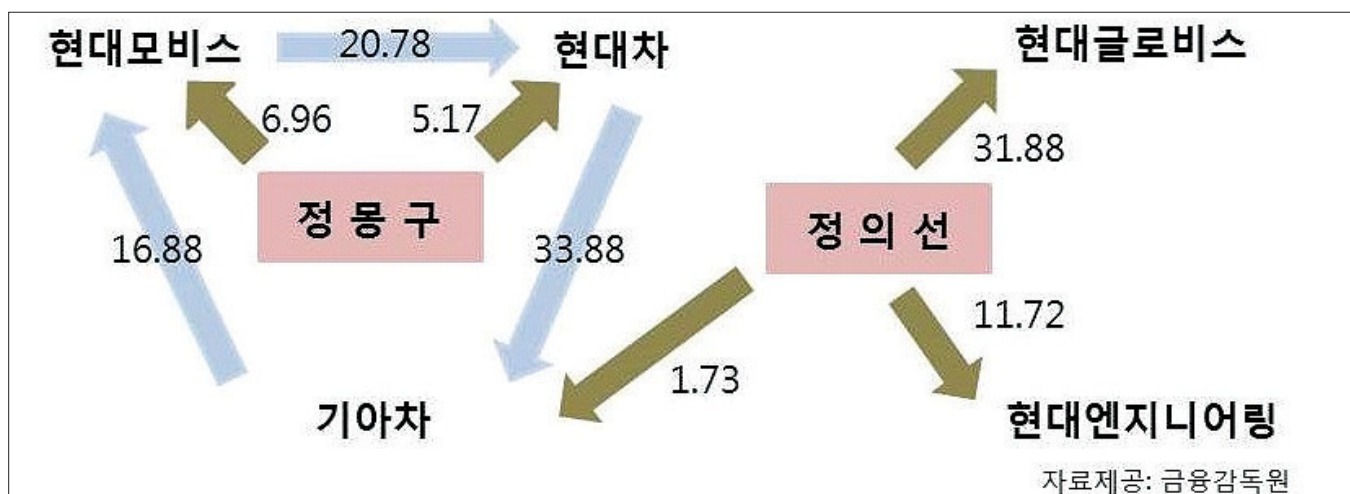
19일 종가 기준 모비스의 시가총액은 24조 7253억원, 글로비스는 8조8125억원이다. 합병시 대략 3 대 1 구조가 되는 셈이다.

글로비스에 대한 정 부회장 지분율이 31.88%이기 때문에 단순 합병시 10% 정도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정 회장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6.96%와 기아차의 지분 16.88% 를 합치면 정 부회장이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모비스 지분은 30%가 넘는다. 때문에 충분히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계열사들이 보유한 모비스 지분을 주식 스와프를 통해 정 부회장에게 몰아주는 것도 생각 가능한 방법이다.

◆다시 한 번 블록딜 시도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정리 작업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유예기간은 2월에 만료된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를 넘는 계열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된다. 부당한 거래라고 판단될 시엔 관련 매출액의 최대 5%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정몽구 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지분 11.5%, 정 부회장은 31.9%를 보유해 두 사람은 전체 지분의 43.4%를 소유하고 있다.

블록딜은 여전히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다. 현대차가 오랜 기간 연구한 시나리오인 만큼 쉽게 버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블록딜 실패는 한 번에 1조3000억원 대의 대량매매를 시도했다는 점과 해외 단기 투자가에 집착해 이를 외국계 증권사 한 곳에 맡긴 것이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내부 검토를 통한 할인율 재조정, 분산 블록딜, 매각 규모 재조정 등이 거론된 후 다시 시장에 나올 경우 승산이 있다는 평가다.

블록딜 불발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안감과 글로비스의 주가하락, 모비스 주가상승이 핵심 변수다. 현대글로비스는 12일 30만5500원이었던 주가가 16일 23만5000원으로 마감하며 5거래일 동안 23.08% 주저앉는 등 지난 한주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현대모비스 인적분할 후 현대글로비스와 합병

현대모비스를 지주회사(HC)와 사업회사(OC)로 인적분할한 후 지주회사와 현대글로비스를 합병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계열사 간 합병을 통해 지분을 정리했다. 2월엔 현대엠코와 현대엔지니어링을 8월엔 자동차부품 계열사인 현대위아와 현대위스코, 현대메티아를 합병했다. 현대오토에버도 현대C&I와 합병했다.

합병 이후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은 많게는 16%대, 적게는 1%대로 낮아졌다. 현대글로비스의 블록딜 실패 이후 '합병'카드가 다시 나오는 이유다.

정 부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율과 두 회사의 시가총액 등을 고려했을 때 그가 확보할 수 있는 합병법인 지분률은 10% 안팎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정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지분 11.5%와 현대모비스 지분 6.96%까지 합치면 합병법인 지분을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하지만 난관이 남았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순조롭게 합병하기 위해서는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져야 한다.

19일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는 23만5000원,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25만2000원이다. 지속되는 현대글로비스의 주가하락으로 합병법인 지분율은 기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제3의 길, 주식스왑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지분을 모비스 지분과 스와프(교환)하는 방법도 있다.

기아차와 현대제철 등 현대모비스 주식을 가진 회사에 정 회장 부자가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주고 현대모비스 주식을 받는 방식이다.

주식 스와프를 활용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고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넘겨 줄 수 있다. 주식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의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동시에 주식을 직접 증여하거나 상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스와프의 경우) 기아차에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주고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받는 등 방법은 다양할 것"이라며 "오너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전했다.

/양소리·황찬수기자 hcs8583@metroseoul.co.kr

삼성 신입 임원들의 영원한 '완생'을 바라며

기자 수첩

황 찬 수 <산업부 기자>

'여유와 불안'이 공존했다. 19일 삼성 임원단 만찬 장소인 장충동 신라호텔에 들어선 신임 임원들의 표정이 그랬다.

행사장 입구에 도사린 100 여명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에도 신임임원들은 위풍당당했다. 글로벌 기업 삼성 임원 다웠다.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2층 다이너스티 홀에서는 연주단의 음악이 흘러나왔다.

임원들은 삼성 로고가 박힌 명찰을 달고 1층에 대기중이던 기자들을 지켜보는 여유도 보였다. 힘겨웠던 2014년 승진했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가져다준 여유였다.

그러나 여유로움 이면에 불안도 보였다.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4조원대로 떨어져 3년 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4분기에는 5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비교적 선전했다.하지만 애플과 샤오미의 점유율이 늘어 휴대전화 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의 입지는 나날이 좁아지고 있다. 결국 영업실적의 책임을 무선사업부가 졌다. 사장급 3명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다른 계열사들도 마찬가지다.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의 합병이 무산되면서 구조조정이 있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부사장 4명을 포함해 임원 10여명이 물러났다.

이재용 부회장은 만찬에서 신임 임원의 승진을 축하하며 "작년 한해는 여러가지로 어려웠다. 그럼에도 좋은 실적을 내 승진한 신임임원들은 능력있는 분들이다. 올해도 열심히 해보자"는 격려사를 전했다.

삼성 신임 임원들에게 2015년은 미생에서 완생으로 거듭난 해로 기억될 것이다. 내년 이맘 때에도 그들 모두가 '1등 삼성'의 깃발 아래 완생의 미소를 머금고 있기를 바라지만, 마음을 놓기에는 삼성을 휘감는 북풍한설이 너무 매섭다.

만찬장 밖 삼성 하청 노동자들의 설움

기자 수첩

양 소 리 <산업부 기자>

산업화는 전통을 바꾼다. 농삿일에 흥을 돋우던 농악은 1970년대 산업화와 함께 '사물놀이'로 변형됐다.

'전통주'의 모습도 변했다. 집집마다 담가놓고 맛을 뽐내던 빚은 술은 예쁜 병에 담겨 판매된다. 전통의 산업화다.

19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그룹 신년행사에도 산업화된 전통이 등장했다. 6시부터 열린 만찬행사는 '미래삼성'을 엿본다는 의미가 있어 오너일가의 말, 제공된 술과 선물 등 면면이 이슈가 된다. 건배주로는 복분자주가 올랐다. '고용' 역시 산업화가 가속되며 모양이 변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행사장 밖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 센터 해고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삼성 마크를 달고 일하지만 애프터서비스(AS) 기사들은 삼성과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사' 소속이다. 법적으로 삼성은 책임이 없다.

그러나 진정 삼성과 무관한가.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인 서비스 센터의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실적평가를 해왔다.

합법적 도급이라면 업무가 완벽히 독립돼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역시 "위장도급이 우려된다"는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자신을 고용한 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일하는 노동자가 생겼다. 전통시대엔 없었던 일이다. 하도급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건배사는 "열심히 도전하자"였다. 그의 도전 뒤에는 삼성마크를 달고 'AS의 삼성'을 지켜주는 노동자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기자들만 아는
숨겨진 속 이야기!

같이 볼래?

용감한 NEWS

충격!

[밀착취재] 신동엽
알고보니, '헐'!

궁금하면!

특별기자회견
용감한 기자들

매주 수요일 밤 11시 E채널

신동엽 | 홍석천 | 김태현 | 김정민 | 레이디제인

이 프로그램은 아임티캐스트 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www.imtcast.com

삼성·LG전자 4분기 스마트폰 실적 웃을까?

삼성전자, 소폭 반등…LG는 성장세 꺾여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일주일여 앞두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의 침체로 '어닝 쇼크'를 겪은 반면 LG전자는 스마트폰 'G3'의 판매 호조로 깜짝 실적을 내놨다. 결국 양사의 실적을 결정 짓는 데는 스마트폰의 영향이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때문에 오는 29일 양사가 내놓는 4분기 성적표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8일 영업이익이 5조원을 회복했다는 내용의 4분기 잠정실적을 공시했다. 5조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한 것은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IM부문의 실적이 바닥을 치고 조금씩 반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이다.

이세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IM부문은 스마트폰 판매는 저조했으나 판가 소폭 상승과 마케팅 비용 축소 등으로 실적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LG전자 MC부문의 경우 4분기 흑자 기조는 이어가나 직전 분기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6',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4' 등 경쟁사의 주력 제품이 출시되면서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박강호·박기범 대신증권 연구원은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6.3% 하락하나 전년동기대비 19.6%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2%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2015년 해결할 과제 많아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양사의 스마트폰 사업 역시 더욱 험난할 전망이다.

게다가 구글의 조립식 스마트폰 '아라'가 올 연말 출시되면 시장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라는 사용자 자신의 사용 환경에 맞게 부품을 조립해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 역시 50달러(5만5000원) 내외로 저렴해 업계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올해 실적에 대한 낙관론이 지배적이나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4 S-LTE'와 LG전자의'G 플렉스2'. /삼성전자·LG전자 제공

삼성전자는 저·중·고가 스마트폰으로 라인업의 다양화를 꾀하면서 지역별 시장 특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고질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이전 제품의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마케팅을 펼치다보면 오히려 신규 제품을 밀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에서 '갤럭시 A5' 출시를 앞두고 전작 '갤럭시 알파'가 특가에 판매되며 소비자의 관심이 분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LG전자는 호평 받았던 G3의 후속 제품의 성공 여부가 관건이다. 또 경쟁사에 비해 국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도 급선무다. 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팅이 지난 7일 내놓은 '2014년 국내 휴대폰 판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LG전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국내 점유율 급락 추세에 있다. 따라서 LG전자가 1분기에 출시할 'G 플렉스2' 'G4' 등 신제품이 해외에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가 향후 LG 스마트폰 사업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동부대우전자, 부사장 4명 승진

동부대우전자(대표 최진균 부회장)는 부사장 4명과 상무 5명 등 총 9명에 대한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성범 상무, 김재현 상무, 김혁표 상무, 안병덕 상무 등 4명이 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이경철 부장, 이상엽 부장, 이홍범 부장, 위대성 전문연구원 등 4명은 상무로 신규 선임됐다.

이와 함께 동부대우전자서비스의 김영혁 부장도 상무로 승진했다.

김성범 부사장은 1958년생으로 경북대학교 공업화학과를 졸업했으며, LG이노텍·LG디스플레이에서 구매담당 상무를 역임했다. 현재 구매본부장을 맡고 있다.

김재현 부사장은 1962년생으로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나왔으며 삼성전자 국내영업에서 B2B영업, 전략유통영업 상무를 지낸 후 현재 동부대우전자 영업본부 국내영업총괄을 맡고 있다.

김혁표 부사장은 1962년생으로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와 헬싱키대 MBA를 졸업했으며 LG전자 상품기획담당 상무 등을 역임했다. 현재 상품기획팀장이다.

안병덕 부사장은 1960년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성전자 관리담당 부장·동부CNI 신사업 CFO를 지내고 현재 기획지원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정혜인기자

"여섯 분만 모십니다" 벤틀리 모터스 코리아 홍보 모델이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전시장에서 '벤틀리 컨티넨탈 GT3-R'을 선보이고 있다. 전 세계에서 300대, 한국에서는 6대 한정 판매될 예정인 이 차는 모터 레이싱 경기에서 증명된 고성능 4.0리터 트윈터보 V8 엔진을 새롭게 튜닝한 엔진이 장착돼 최고출력 580마력, 최대토크 71.4kg·m의 힘을 뿜어낸다. /연합뉴스

소니코리아 대표에 모리모토 오사무

소니코리아는 사카이 켄지 대표이사가 정년퇴직함에 따라 모리모토 오사무(사진)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오사무 신임 대표는 1981년 소니 반도체 프로세스 엔지니어로 입사, 1993년 소니 싱가포르와 1996년 소니 홍콩에서 반도체 영업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다. 2007년 소니 유럽 S&E 솔루션의 부사장을 역임했고 2011년부터는 소니 본사의 디바이스 솔루션 비즈니스 그룹에서 디바이스 영업 및 마케팅을 총괄했다.

그는 다음 달 1일 대표이사에 취임한다.

한편 소니코리아는 컨슈머프로덕트 부문, 프로페셔널솔루션 부문, 애플리케이션과 디바이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 이미징, 오디오, 방송 장비, 디바이스 분야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과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

SK텔레콤 'ICT기반 자전거 솔루션' 개발

알톤스포츠와 MOU…"도난 범죄 줄인다"

SK텔레콤은 알톤스포츠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자전거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MOU체결로 양사는 SK텔레콤의 비콘·위치관제 기술을 기반으로 'ICT기반 자전거 솔루션'을 개발한다. 향후 자전거 등록제 플랫폼 개발도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ICT 기반 자전거 솔루션'은 자전거 내부에 장착된 비콘 센서를 기반으로 ▲도난·분실방지 서비스 ▲자전거 등록·관리 서비스 등 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 자전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자전거 레저 문화의 빠른 확산과 중고가 자전거의 판매 증가로 자전거 도난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08년 4915건이었던 자전거 도난범죄는 2013년 1만577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양사가 구현 예정인 도난·분실방지 서비스는 블루투스 비콘을 적용하게 된다. 근거리 내에서 사용자 스마트폰과 자전거가 직접 연결돼 움직임 감지 실시간 알림, 도난 자전거 확인·수색이 가능하다.

또 원거리일 경우 자전거 보관소, 공원, 대리점 등 다양한 지역에 설치 예정인 AP(Access Point)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전거 등록·관리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는 자전거마다 고유 ID를 부여 받고 관리하며 판매점,

수리점 등에서의 구매내용, 부품교체 등 이력관리 정보를 제공받는다.

향후에는 통신형 비콘 센서를 활용해 위치추적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조승원 SK텔레콤 솔루션영업2본부장은 "ICT 기반의 자전거 솔루션을 통해 자전거 도난·분실 등 자전거 범죄에 대한 대책수립과 첨단 자전거 레저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쿠팡, 사실상 택배사업"… 로켓배송 '불법' 논란

물류협회 "개인차량 사용은 안된다"

소셜커머스 쿠팡이 차별화 전략으로 선보인, 구매 고객에게 직접 제품을 배송하는 '로켓배송' 서비스가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사실상 '택배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자가 차량을 임의로 운용하는 등 현행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피해 편법으로 상품을 배송하고 있다는 것.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화물운송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을 동원해 배송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쿠팡이 사실상 택배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송사업자 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워 개인 차량으로 배송하는 것이 아니냐며 최종 소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택배 사업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상품을 공급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택배업체들의 경우 영업용 화물자동차용 번호판인 '노란색 번호판'을 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쿠팡 측이 배송하는 차량은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으로 '하얀색 번호판'을 달고 있다.

협회 택배위원회 관계자는 "직접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아닌 도소매상에 직 공급할 때는 자가용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쿠팡과 같이 최종 소비자에게 어떤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화물용 차량을 사용해야만 한다"며 "2003년 화물연대가 파업 때 과잉공급을 문제 삼아 정부에 신규 공급 중단을 요청했었는데 이후 운수사업 면허가 허가제가 되면서 신규 허가가 안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적, 비용적인 측면에서 직접 배송은 쉽지 않아 다른 유통업체에서도 특정 택배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배송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팡은 현재 로켓배송 카테고리를 별도로 두고 뷰티, 출산·유아동, 식품, 가구·홈데코, 도서·문구·취미 등의 상품을 당일·익일 배송하고 있다.

9800원 이상의 상품만 로켓배송으로 무상 배송한다.

로켓배송 서비스를 위해 1000여명의 '쿠팡맨'을 고용했으며 올해는 서비스 소화 물량에 따라 쿠팡맨을 늘리고 서비스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미국 블랙록이 주도한 투자사들로부터 3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것도 배송 서비스 강화 전략의 일환이다.

쿠팡 측은 협회 측의 주장에 대해 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무상 배송이고 사전에 대량 매입한 상품을 배송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택배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번 협회의 지적은 서비스의 품질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현재 해당 건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운수사업법에 저촉할 경우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홈플러스, 1~2인 가구용 '간편채소' 출시 20일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1~2인 가구를 위해 요리별로 필요한 채소를 소량 포장한 '간편 채소'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농협 택배 진출… 중소업체 줄도산 우려

"홈쇼핑·인터넷 농축산물 판매 늘어 불가피"

농협의 택배사업 진출이 가시화되며 중소 택배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20일 농협에 따르면 농업인의 택배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기존 택배사를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택배사업을 시작하며 형태는 주식회사로 운영할 방침이다.

농협은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한 농축산물 판매가 증가하는 데다 농업인과 농민단체가 택배 안전성 확보를 요구해 택배업 진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택배업에 진출하면 도시에 비해 낙후한 농촌의 택배발전을 이끌 수 있고, 직거래를 통한 농업인의 농축산물 판매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농협은 "기존의 택배사가 부피가 크고 무거운 농축산물 택배를 기피해 농업인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데다 배달 과정에서 상품 손상으로 변상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택배단가는 5000~7500원 수준으로 평균가인 2500원보다 높아 농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농협은 2000년대 초반부터 택배사업 참여를 타진했다. 2007년 대한통운, 2010년 로젠택배 인수를 검토해왔다.

지역농협과 하나로마트에서 택배물량을 집하하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에 대해선 "기존 대리점을 중심으로 집하와 배송이 이뤄지며 지역농협이나 하나로마트의 역할은 결정된 바 없어 일감 몰아주기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택배업계는 '거대공룡' 농협이 택배사업에 진출함에 따라 택배단가가 하락해 기존 업체의 수익률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등 기존 택배업계는 농협이 단가인하 경쟁을 부추겨 업계가 공멸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택배요금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면 인건비도 자연스레 낮아져 택배기사의 수수료가 떨어지고 이들의 근로여건도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우체국이 택배업에 진출한 2000년부터 기업 간 경쟁으로 평균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 기준 시 평균단가는 2480원으로 2500원선이 붕괴됐다. 2000년대 초반 47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반값으로 떨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우체국의 손실규모도 악화해 2007년 577억원이었던 우체국택배의 손실액은 2010년 1220억원으로 증가했다.

농협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택배시장 규모는 약 3조7000억원 수준으로, 이 중 농축산물 택배물량은 1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CJ·현대·한진·우체국 등 4대 택배업체의 취급물량은 71% 정도다. /염지은기자 senajy7@

특급호텔 레스토랑, 졸업·입학생 할인

특급호텔 레스토랑들이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가족 외식 고객을 위한 메뉴와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의 피자 전문 레스토랑 '피자힐'은 졸업·입학 증서를 지참한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졸업·입학 가족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훈제연어 샐러드, 피자, 스파게티, 브라우니 등으로 구성된 3~4인용 메뉴로 가격은 13만원이며 음료 1잔은 무료로 제공한다.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의 숯불구이 전문점 '명월관'에서는 졸업·입학 증서 지참 고객이 US양념갈비 2인분(400g)을 주문하면 1인분(200g)을 추가로 제공하는 행사를 내달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한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의 뷔페 레스토랑 그랜드 키친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의 뷔페 레스토랑 브래서리에서는 졸업생이나 입학생 당사자의 식사 금액을 50% 할인하는 행사를 내달 2일부터 3월 8일(2월 14일 및 설 연휴 제외)까지 진행한다.

할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적용된다. 학생증, 졸업증명서, 신분증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의 뷔페 레스토랑 '가든 테라스'에서는 졸업생 또는 입학생을 동반한 4인 이상 가족이 식사하면 한 명분을 무료로 제공한다. 내달 9일부터 3월 13일까지다. 쉐라톤 인천 호텔의 뷔페 레스토랑은 내달 1일부터 3월 3일까지 입장 시 학생증을 보여주면 최대 8명까지 20% 할인 혜택을 준다.

/김수정기자

CJ오쇼핑, 겨울상품 최대 50% 할인

CJ오쇼핑은 20~21일 겨울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시즌아웃 세일' 특집 방송을 한다.

의류·잡화·침구·아웃도어·언더웨어 등 30여 개 브랜드 상품을 특가에 선보인다. 행사 상품의 3분의 1 이상을 론칭 이후 최저가에 판매한다.

대표 상품은 브레라 양털 웨지부츠(7만9000원), 푸시앤건 헤링본 롱코트(14만8000원), 로라애슐리 극세사 침구(7만9900원) 등이다.

오는 25일까지 모바일 앱에서 특집 방송 상품을 포함해 TV홈쇼핑 상품을 2번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CJ원 포인트를 2배 적립해준다. /김수정기자

내의, 젊은층 '맵시'·중년 '보온'

2030 '발열', 3040 '기모' 구입… 좋은사람들 분석

연령 별로 선호하는 내의 종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층의 경우 얇지만 보온성이 강한 내의를, 중년층은 두툼한 소재의 내의를 많이 구매했다.

속옷전문기업 좋은사람들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자사 브랜드 보디가드, 제임스딘, 퍼스트올로의 내의 판매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30대는 '발열 내의'를, 30~40대는 '기모 내의' 구매율이 높았다.

20~30대 전체 구매자의 64%가 얇지만 보온성이 뛰어난 '발열 기능성 내의'를 구매했다. 이어 기모 내의(22%), 스포츠 기능성 내의(8%) 순으로 구매했다. 반면 30~40대에서는 '기모 내의' 구매자가 절반 이상(58%)을 차지했으며 32%가 발열 내의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층은 겉옷 맵시나 활동성을 고려해 구매하려는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복 착용에 익숙한 중년층은 도톰한 소재감 자체로 보온효과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기모 내의를 선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젊은층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은 보디가드, 제임스딘의 '와우웜 체열반사 내의'(사진)였으며 중년층에서 인기를 끈 제품은 제임스딘의 '폴리기모 내의'였다.

좋은사람들 마케팅팀 박미경 대리는 "얇은 기능성 발열내의가 인기를 끌면서 내복 착용이 젊은 층에 확대됐지만 중장년 층은 여전히 도톰한 기모내의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며 "내복 착용은 체감 온도 상승에 효과가 있지만 각자의 체질과 활동성에 따라 보온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성향을 체크해 고르면 더욱 실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라면 인기 지도 달라졌다

불닭볶음면·오징어짬뽕 매출 크게 늘어

'모디슈머' 열풍이 전국 라면 인기 지도도 바꿨다.

20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봉지라면 매출이 간편 가정식 등 대용식 시장 확대로 전년 보다 8.1% 감소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모디슈머 열풍으로 삼양 불닭볶음면과 농심 오징어짬뽕의 매출이 각각 64.8%, 8.9% 늘었다. 2013년 짜파구리에 이어 불짬뽕 레시피로 농심 오징어짬뽕의 매출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2013년 봉지라면 매출 14위였던 삼양 불닭볶음면은 2014년 9위까지 순위가 상승하기도 했다.

반면 전통적으로 여름철 대표주자였던 팔도비빔면은 19.7% 매출이 감소하며 8위로 2계단 하락했다.

또 오뚜기 진라면은 광고 모델인 '류현진 효과'에 힘입어 매출이 20~40% 가량 늘었다. 농심 안성탕면은 매출 구성비가 소폭(0.2%) 증가하며 3위에, 삼양라면은 매출이 24.3% 감소했으나 5위에 자리했다.

한편 113개 점포를 행정구역 기준으로 나눠 매출 변화를 살펴본 결과 농심 신라면이 전 지역 매출 1위를 차지했다.

전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3위 라면이 농심 브랜드였으며 오뚜기 참깨라면은 강원과 충남에서 10위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다. 경상도(경북·경남)의 경우 농심 올리브 짜파게티 보다 농심 안성탕면의 선호도가 더 높았다.

박진호 롯데마트 인스턴트 MD는 "소주와 비슷하게 라면 역시 지역별로 미묘하게 선호도에서 차이가 나는 품목"이라며 "점포별 진열대장 업데이트나 행사 발주 시 이를 고려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이마트, 피부 안티에이징 '솔루시안 리페어' 라인 출시 이마트가 자체 화장품 브랜드인 솔루시안의 안티에이징 특화제품군인 리페어 라인을 출시하고 전국 점포에서 판매에 돌입한다. 가격은 클렌징 마스크(100ml) 1만5000원, 스킨(140ml) 2만9000원, 에멀젼(120ml) 3만2000원, 멀티밤(25ml) 1만5000원으로 시중 유명 브랜드의 기능성 화장품 대비 50% 이상 싸다. /이마트 제공

'맥심 화이트골드' TV광고 선보여

동서식품이 제주 겨울바다에서 전하는 맥심 화이트골드 TV광고 '처음부터 끝까지'(사진) 편을 선보였다.

야외활동이 어려운 추운 겨울이지만 맥심 화이트골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커피 한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맥심 화이트골드 모델 김연아가 겨울 바다를 바라보며 카라반 안에서 따뜻한 커피 한잔을 즐기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아름다운 제주의 겨울 절경과 어우러진 김연아의 사랑스러운 모습, 카라반의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까지 맥심 화이트골드의 부드러움과 어울리는 여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동서식품 인스턴트 원두커피 '카누' 모델로 활동중인 배우 공유가 지난 광고에 이어 내레이션을 맡아 특별함을 더했다.

맥심 화이트골드는 우유를 넣어도 커피의 향이 그대로 살아있는 부드러운 커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박지원기자 pjw@

밀레 새얼굴에 이종석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는 새로운 브랜드 전속 모델로 배우 이종석(사진)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종석은 모델 출신으로 뛰어난 신체조건과 함께 장난기가 있는 미소년의 모습부터 귀공자의 이미지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갖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고 밀레는 설명했다.

여성 모델로는 배우 박신혜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활동하게 된다.

강강술래, 갈비전문관 오픈 앞두고 이벤트

클라우드 맥주 주문하면 스크래치 쿠폰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오는 27일 고양 늘봄농원점에 10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갈비전문관 오픈을 앞두고 다양한 이벤트를 벌인다.

전 매장에서는 클라우드 맥주를 시킨 고객에게 700만원 상당의 명품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스크래치 쿠폰을 1매씩 증정한다.

매장에서 명함 또는 이름·연락처를 적은 응모권을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1등에게는 동남아 여행패키지 상품권(2명·동반 1인)을, 2등에게는 한우불고기 2호 선물세트(30명), 3등은 냉면

상품권 1매(100명)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연다.

또 와인(카르멘 톨텐 멜롯) 1병을 주문하면 와인(카르멘 톨텐 카버네쇼비뇽) 1병을 선물로 준다.

같은 기간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통등심돈가스(720g·2박스)와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2박스)로 구성된 세트를 40% 할인된 3만7200원에, 한우양념불고기(500g·2팩)와 한돈양념구이(500g)로 구성된 나라사랑세트를 약 43% 할인된 4만3000원에 판매한다.

한편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sullai.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삼원온스파의 최고급 온수매트 퀸과 온천·스파를 즐기며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리솜스파캐슬 천천향 이용권, '스키너의 마지막 강의' '슈퍼잼 스토리' 등 길벗의 추천도서를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김수정기자

금단현상 넘어야 금연 성공

1~2주 지나면 대부분의 증상 사라져

금연을 결심한 이들이 많지만 금단현상으로 다시 담배를 손에 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금단현상은 대부분 1~2주 이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넘겨야 금연에 성공할 수 있다.

사실 담배를 끊게 되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머리가 멍하거나 두뇌 회전이 잘 안 되는 듯 하고 집중력이 저하된다. 또 졸리거나 울렁거림에 시달리기도 하고 불안과 초조, 짜증 등을 느끼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체중이 증가하기도 한다.

적지 않은 흡연자들이 이와 같은 금단현상을 핑계로 슬그머니 담배를 집어들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금연을 지속할 수 있다. 더욱이 금단현상의 원인이 니코틴이기 때문에 담배를 참다가 피우면 금연이 더욱 힘들어진다.

실제로 니코틴이 뇌로 공급되면 도파민 분비가 활발해져 편안함이나 행복감을 느끼는데 금연으로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면서 금단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마지막 담배를 피운 후 2시간 이내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며 하루나 이틀 사이에 최고조에 이른다.

개인차에 따라 기간이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금단현상의 대부분은 1~2주 이내에 감소한다. 게다가 보조제나 치료제를 활용하면 금단현상 없이도 금연에 성공할 수 있다.

아울러 금연클리닉에서는 니코틴 의존도를 검사해 패치나 껌, 사탕 등의 보조제를 개인에 맞게 처방해준다. 전문의약품인 금연 치료제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상황에 맞는 금연 프로그램을 제시해 최대한 금연을 도울 수도 있다.

유태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금단현상 때문에 금연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금연은 생활습관 개선이 동반돼야 하며 혼자서 힘들다고 판단되면 금연클리닉 등을 통해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마사지 잘못 받으면 되레 독!

통증 느껴지면 강도 줄여야

바쁜 일상생활과 스트레스로 근육이 뭉치거나 몸이 무거워지면 사람들은 마사지를 통해 피로를 해소한다. 하지만 강한 압력이 가해지거나 척추 질환이 있는 사람이 마사지를 잘못 받으면 신체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마사지는 기본적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 통증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 생성을 억제하고 혈관과 림프관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등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잘못된 방법으로 마사지를 받거나 강한 압력을 주는 마사지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목을 꺾거나 체중을 실어 몸 위에 올라가 허리를 밟는 마사지 등 강도 높은 마사지는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더욱이 디스크 증상이 있거나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마사지는 위험하다. 마사지를 받으며 생기는 압박이 디스크 질환을 악화시켜 심한 경우 척추압박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마사지를 받을 때 통증이 느껴지면 참지 말고 강도를 줄여달라고 해야 한다.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마사지를 계속 받으면 각종 관절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디스크 환자는 신경차단술이나 물리치료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며 마사지를 치료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여석곤 참튼튼병원 장안동지점 원장은 "마사지는 근육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지만 본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마사지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통증이 생기면 즉시 마사지를 중단하고 이후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면 병원을 찾아 근육 손상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당뇨 환자 족부관리 신경을

이혜진 이대목동병원 교수 "발 위생·보호 필요"

겨울철 당뇨병 환자는 발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추운 날씨로 혈관이 수축돼 발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 당뇨병성 족부 병변이 잘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이혜진(사진) 이대목동병원 교수에게서 족부관리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먼저 당뇨병으로 발생하는 족부질환은 발에 생기는 통증과 저림, 부종 등 모든 병변을 말한다. 당뇨병 환자의 5~10%가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하며 3% 정도는 하지 절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 상처가 생기면 쉽게 낫지 않는다.

또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족부 궤양 발생의 가장 위험한 인자 중 하나다. 신경병증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신체의 말단 부위에 주로 나타나는데 감각 이상으로 시작돼 신체 위쪽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인다. 진행이 느리고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간과하기 쉽지만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항상 발을 청결히 하고 발을 씻은 후에는 발가락 사이를 잘 건조시켜야 한다. 또 하루 1회 이상 발바닥의 이상 유무를 관찰하고 보습제 등을 통해 인공적인 피부 기름막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겨울철에는 난방기구 등을 발에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하며 보온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좋다. 하체를 압박하는 레깅스나 스타킹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이 교수는 "당뇨병 환자는 발 위생과 보호에 철저해야 한다. 굽이 낮고 앞이 넓으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진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동국제약 '타바겐겔' 출시

3가지 활성성분 작용으로 멍과 부기를 한 번에

동국제약(대표 이영욱)이 타박상 치료제 '타바겐겔'을 출시했다.

타바겐겔은 ▲무정형에스신 ▲헤파린나트륨 ▲살리실산글리콜 등 3가지 활성성분의 복합작용으로 멍과 부기를 동시에 치료하는 제품이다.

또 벌레에 물렸을 때도 효과적이며 정맥류상 부종과 표재성 정맥염, 사고시 외상 등에도 진통·소염 작용을 한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타바겐겔은 특히 성형수술이나 외과수술 후 생긴 멍을 빨리 없애 줄 수 있다. 또 제품을 정맥순환 개선제와 함께 사용하면 통증과 부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타바겐겔은 가까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이다.

/황재용기자

중앙대병원, 제2의 도약 선언

흑석동 이전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중앙대병원(원장 김성덕)이 서울 흑석동으로의 이전 10주년을 맞아 지난 16일 병원 중앙관 동교홀에서 '중앙대병원 흑석동 이전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병원의 현재와 미래, 특성화센터의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세철 명지병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건상 중앙대병원 명예교수 등이 병원의 과거·현재·미래와 4대 특성화센터의 발전 전략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병원은 이 자리에서 ▲가장 안전한 병원 ▲가장 친절한 병원 ▲가장 잘하는 병원 등의 병원의 미래 목표와 전략을 선포했다.

한편 병원은 지난 2005년 서울 필동에서 흑석동으로 이전했다.

/황재용기자

장그래·안영이 말에도 귀 기울인다

닐슨·CJ헬로비전·로레알 등 신입 의견 적극 반영 눈길

"신입사원의 이야기를 알뜰하게 챙겨주는 오차장 같은 상사는 아마 없을거야."

직장인들의 회식자리에서는 아직도 이같은 한탄이 안주거리로 오르고 있다. 지난 연말에 끝난 드라마 '미생'의 여운이 안타까운 현실과 대비되며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오차장 같은 회사'를 만나 자신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휘하는 신입사원들도 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뽐내는 '장그래', 선배들도 부러워하는 실력의 소유자 '안영이'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닐슨 코리아 농구 동호회

CJ 헬로비전 이어드림

로레알코리아 메르시 카페

◆동호회도 죽다 살아나=여론조사 업체인 닐슨코리아 직원들은 최근 한층 밝아진 사내문화에 만족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다이내믹하고 즐거운 사내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구성된 '뻔뻔(FUN FUN) 주니어 보드' 덕분이다. 각 사업부 9명의 특급 주니어군단(사원~과장)으로 구성된 '뻔뻔 주니어 보드'는 대표이사와의 정기적 미팅을 통해 신세대 사원들의 생각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 회사의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기도 한다.

특히 '뻔뻔(FUN FUN) 주니어 보드'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동호회 문화도 살려냈다. 신입사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회사 지원금을 연 100만원으로 증액했다. 1개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던 닐슨코리아의 동호회는 현재 5개까지 늘어났다.

◆신입 아이디어를 사업화=CJ헬로비전은 신입사원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한 서비스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시각장애인 텔레비전 시청 도우미 서비스 '이어드림'이 대표적이다. 신입사원 2명이 2013년 사내 공모대회에 출품해 대상을 받은 이 서비스는 시각장애인 스스로 방송채널과 주문형비디오(VoD), 화면해설방송 녹화(PVR)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밖에 실시간 방송과 VOD를 모바일 기기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 '티빙'에 적용한 손가락 리모컨 서비스 '티빙 크래용'도 신입사원의 아이디어에서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화점 직원까지도 포용=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유명한 로레알코리아는 본사 직원들과 백화점 판매직원들 사이에 유대감이 돈독하다. 신입사원들의 제안으로 사내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인 '메르시(감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캠페인은 매달 마지막 주 '메르시 위크(Merci Week)' 동안 개성 가득한 '메르시 액션'을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이다.

매장 단위로 자유롭게 메르시 액션을 수행하고 인증샷을 공유한다. 1500명의 전 직원 중 1200명에 달하는 백화점 판매직원들도 이 캠페인을 통해 소속감을 높이고 본사 직원들과 동료애도 나누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입상과 취업을 한번에

두마리 토끼 잡는 공모전 가이드

공모전 입상하고 취업 가산점 받고.

겨울방학을 맞아 스펙 쌓기를 향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영어 성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스펙 가운데 직무 경험과 입사 가산점을 고루 챙길 수 있는 공모전을 소개한다.

이왕 준비하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입사 특전을 주는 대회를 공략하면 일거양득이다.

제주항공은 장사 첫 마케팅 아이디어 공모전 장려상 이상 수상자에게 서류전형을 면제한다. 취업 탈락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단계가 서류 전형임을 고려할 때 매력적인 특전이다. 대상 수상자는 제주항공 인턴십 기회도 획득할 수 있다. 제주항공 부산발 국제선 광고·마케팅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이번 공모전은 3월 1일까지 진행된다.

패션그룹 형지는 다음달 22일까지 크로커다일레이디의 악어 캐릭터와 그래픽 아트 디자인 작품을 공모한다. 캐릭터와 그래픽 아트 등 두 부문으로 진행되는 공모를 통해 대상과 우수상 각 1명, 장려상 4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 1명에게는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수상자가 패션그룹 형지에 공채 지원하는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홍보 대사 활동도 잘 활용하면 입사로 이어질 수 있다. 폴햄은 제1회 마켓·홍보 서포터즈 프로그램 '디스커버, 뉴 폴햄' 지원자를 이번달 25일까지 모집한다. 우수 활동팀 및 개별 MVP는 상금뿐 아니라 폴햄 공채 입사지원시 가산점을 받는다.

/장윤희기자

C-페스티벌 성공기원 떡 나누기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로비에서 열린 'C-페스티벌 D-100일 성공기원 외국인 떡 나누기 행사'에서 변보경 코엑스 사장(오른쪽 셋째)과 외국인 입주업체 대표, 직원들이 행사 참가자들과 떡을 나누고 있다. C-페스티벌은 문화(culture), 콘텐츠(contents), 컨벤션(convention), 융합(convergence: culture-art-technology) 등의 키워드를 콘셉트로 올 4월 30일부터 열흘간 삼성동 무역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취업자 2명 중 1명 수도권 취직

경기도 증가율 1위

지난해 취업자의 절반은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중 '행정구역별 취업자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수도권에 취업한 사람은 1284만1000명으로 총 취업자(2559만9000명)의 50.2%를 차지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4년(48.3%)보다 1.9%p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30~39세'의 수도권 취업자 비중이 54.7%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 다음으로 취업이 많이 이뤄진 지역은 '부산광역시'(166만7000명)였다. 부산은 전체 취업 지역의 6.5%를 차지했다. 이어 '경상남도'(163만2000명·6.4%), '경상북도'(142만명·5.5%), '대구광역시'(121만5000명·4.7%), '충청남도'(115만8000명·4.5%) 순이었다.

취업자 수 증가률의 경우 '경기도' 증가폭이 27.7%로 가장 컸다. 2위와 3위는 각각 '충청남도'(25.7%)와 '인천광역시'(23.2%)였다. 다른 행정구역에서도 취업자수가 고르게 증가한 가운데 '전라남도'(-2.3%)만 취업자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장윤희기자 unique@

'JYP 최장수 연습생' 가수
지소울 G.soul

연습생 신분 15년 "원망은 없다"

'JYP 최장수 연습생'으로 알려진 가수 지소울(27·본명 김지현)이 연습생 생활 15년만에 데뷔 앨범을 발표했다. 13살 어린나이에 박진영에게 발탁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한 그는 19일 첫 번째 앨범 '커밍홈(Coming Home)'을 공개했다. 그는 "홈은 내 최종 목표다. 사람들은 내 '15년'에 주목하고 궁금해 한다. 이 앨범이 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작곡 채운 데뷔 앨범 '커밍 홈' 발표
이제부터 일에 집중…팬 만나고 파

◆ 출발선에 서다

원더걸스 선예, 2AM 조권과 함께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그는 친구들이 데뷔하고 히트앨범을 낼 동안 여전히 연습생이었다. 20대 후반의 청년에게 15년은 매우 긴 시간이다. 박진영에 대한 원망은 없었을까.

"그런 마음은 순간이고 금방 내려놨어요. 어찌됐든 내게 처음 기회를 준 곳이니까요. 그 기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건 오로지 제 몫이니까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난 왜 이것밖에 못 할까' 하고 스스로에게 화가 날 때가 있었죠."

음악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왔다는 그에게도 고비의 시기는 있었다.

"당연히 방황도 했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선 어릴 때부터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믿음도 있었고요. 그걸 잃어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저 죽어라 하면 뭐든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내니 15년이 된 것 뿐이죠. '15'라는 숫자도 기사로 보고 나서야 실감났어요."

그가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배경엔 그의 긍정적인 성격이 한몫했다.

"비현실적일 정도로 긍정적이에요. 나쁜 상황에 처하면 그 안에서 배울게 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하면 더 불안해지더군요. 연습생 동기들이 먼저 데뷔했다고 해서 질투한 적도 없어요. 그 친구들은 내 가족이니까요. 또 나와 타인을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내 일에만 집중하면 언젠가 잘 되리란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 지소울 연대기, 제 1장

그는 데뷔 앨범을 모두 자작곡으로 채웠다. 총 20곡을 들고 귀국했지만 그 중 6곡을 선별해 미니 앨범으로 발매했다.

"나를 소개하는 6곡이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성장해 나갈 아티스트라는 걸 보여주는 앨범이죠. 제 음악 인생의 첫 번째 장인 셈이죠. 미국에서 9년 정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친한 친구와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약 3, 4년 동안 일주일에 최소 서너번은 거리 공연을 했어요. 언제나 곡을 쓰고, 녹음을 하고, 작은 무대라도 찾아다녔죠. 지난해에는 머라이어 캐리의 자선 공연에도 백 보컬로 참여했어요."

타이틀곡 '유(You)'는 발표 직후 음원차트 1위를 기록했다. 수록곡 '커밍홈' '변명' 등도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음악팬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유'는 지난해 여름 만든 노래예요. 좋아하는 친구에 대해 썼는데, 그 친구는 자기 얘기인지 모를 것 같아요. '변명'도 실제로 제가 만났던 친구한테 했던 말을 가사로 옮겼어요. 주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노래를 만들어요. 그래야 듣는 사람도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출발선에 선 그에게 새로운 목표는 무엇일까.

"우선 늘 해온 것처럼 열심히 노래를 만들고 불러야죠. 그리고 빨리 공연해서 팬을 만나고 싶어요."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star bag

연정훈 중국 관광 홍보대사

배우 **연정훈**이 중국국가여유국에서 개최하는 2015년 '중국 관광의 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20일 판쥐링 중국국가여유국 서울지국장은 "한중 관광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한국 국민에게 중국 관광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배우 연정훈을 홍보대사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위안, SM C&C와 계약

JTBC 인기예능프로그램 '비정상회담'의 **장위안**이 SM C&C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장위안은 "한국은 물론 중국 시장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치기 위해 SM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SM C&C와 계약을 맺었다"며 "앞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터보 베스트 앨범 발매

1990년대 인기 댄스 듀오 **터보**가 히트곡을 엄선한 베스트 앨범 '리부트: 더 베스트(REBOOT: THE BEST)'를 21일 발매한다.

터보는 최근 MBC '무한도전' 특별기획전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토토가)'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원년멤버 김정남은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도하린, 투수 지승환과 결혼

그룹 스페이스A 전 멤버 **도하린**(26)이 LG트윈스 투수 출신 지승환(30)과 백년가약을 맺는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3월 14일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들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만나 지난해 초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신혼집은 제주도에 마련할 예정이다.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소년이여! 영웅이 되어라~

상실감 이겨내는 인간과 로봇의 교감 '꿈·우정·성장' 잊고 지낸 동심 자극

■빅 히어로

'빅 히어로'를 보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만화에서 보던 변신 로봇이 실제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던 그때를 말이다.

영화의 주인공인 히로는 13세 나이에 이미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천재 소년이다. 뛰어난 두뇌를 갖고 있지만 그 재능을 불법 로봇 격투 대회에 쓰고 있는 철부지다. 히로의 형이자 보호자인 공학도 테디는 그런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에 히로의 건강을 책임질 로봇 베이맥스를 만든다. 마침내 베이맥스를 히로에게 소개시켜주는 순간 예상치 못한 사고는 두 형제에게 이별을 선사한다.

'빅 히어로'의 중요한 테마는 바로 '상실감'이다. 너무 이른 나이에 형을 잃게 된 히로는 크나큰 상실감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다. 대학 진학의 기회마저도 포기하려는 히로의 아픈 마음은 잠들어 있던 베이맥스를 깨운다. 아프다는 신호만 받으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베이맥스는 히로의 몸은 물론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한다. 소년과 로봇 사이에서 오가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교감은 '빅 히어로'가 지닌 감동의 포인트다.

디즈니 애니메이션답게 꿈과 우정, 그리고 성장이라는 주제도 곳곳에 녹아있다. 히로를 걱정해 모인 네 친구들이 의문의 적을 쫓으며 벌어지는 모험은 시종일관 유쾌하다. 개성 뚜렷한 캐릭터의 매력도 가득하다. 이쯤 되면 '겨울왕국'으로 보여준 디즈니의 저력이 일회성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빅 히어로'는 디즈니와 마블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영화가 그리는 영웅과 악당의 탄생 과정은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비롯한 여타 마블 히어로의 스토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뒤 등장하는 '쿠키 영상'은 디즈니가 마블 팬들을 위해 마련한 작은 선물이다.

'겨울왕국'이 소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빅 히어로'는 소년의 마음을 사로잡을 작품이다. 동심이 사라졌다고 믿는 당신도 '빅 히어로'를 보는 동안에는 한 순간이나마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빅 히어로'는 잊고 지낸 마음 한 구석의 순수함을 자극한다. 지극히 디즈니스러운 작품이 아닐 수 없다. 전체 관람가. 1월 22일 개봉.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온라인 핫 이슈

김장훈 비행기서 흡연…"공황장애 탓"

검찰, 약식기소 처분

가수 김장훈(사진)이 비행기 내 흡연으로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지난 19일 김장훈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장훈이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유럽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의원 10명의 시민위원은 만장일치로 약식기소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장훈이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지민기자 langkim@

섹시·청순·우아 '변신은 무죄'

이연희 '조선명탐정2'서 3색 캐릭터 열연

배우 이연희(사진)가 영화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에서 3색 변신을 한다.

이연희는 극중에서 주인공 김민(김명민)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 수사를 방해하는 묘령의 여인 히사코 역을 맡았다. 아군인지 적군이지 알 수 없게 혼란을 주는 캐릭터다.

이번 영화에서 이연희는 짙은 화장에 강렬한 색감의 기모노를 입은 섹시함부터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신비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청순함, 그리고 푸른색 기모노의 우아함까지 다양하게 변신을 했다.

이연희는 일본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직접 공수해온 기모노로 게이샤 캐릭터의 매력을 살리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촬영 한 달 전부터 직접 무용을 배우며 캐릭터에 몰입한 그는 실제 촬영에서도 전문 무용수 대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연기를 펼쳤다.

권유진 의상 감독은 "이연희는 워낙 예뻐서 장신구를 오히려 배제해야 했다"고 영화 속 이연희의 변신을 극찬했다. 이연희의 다채로운 매력이 관객 마음까지 사로잡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은 조선 경제를 어지럽히는 불량 은괴 유통 사건과 동생을 찾아달라는 한 소녀의 의뢰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해결하게 된 명탐정 김민과 서필 콤비의 이야기를 담았다. 2월 개봉.

/장병호기자

임영규 술집 난동 집행유예 선고

배우 임영규(사진)가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것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오전 6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7월에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장병호기자

'메이드 인 차이나' 로테르담 간다

김기덕 감독 각본·제작…박기웅·한채아 출연

김기덕 감독이 각본과 제작을 맡은 영화 '메이드 인 차이나'(사진)가 제44회 로테르담국제영화제에 초청됐다.

영화의 해외 배급을 담당하는 화인컷에 따르면 '메이드 인 차이나'는 로테르담국제영화제의 '시그널즈: 에브리데이 프로파간다' 부문에 초청됐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사상과 이념을 다룬 작품들이 선정되는 비경쟁 섹션이다.

영화제 측은 "오늘날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적 편견이 개개인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준 작품"이라고 초청 이유를 밝혔다.

'메이드 인 차이나'는 김기덕 감독이 여섯 번째로 각본과 제작에 나선 작품이다. 신예 김동후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배우 박기웅, 한채아 등이 출연한다.

/장병호기자

주검으로 돌아온 딸,
엄마의 복수가 시작됐다!

tvN 일일드라마

매주 {월~목} 오전 9시40분 tvN

"내 작품은 단돈 1원"

시사만화가 김진호 24~25일 '디지털 추상화전'

시사만화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진호 화백이 오는 24~25일 혜화역 내에서 '해와 달이 있는 디지털 추상화전'을 연다.

태백신문을 시작으로 인천일보, 영남일보, 경남매일 등에서 시사만평을 그려왔던 김 화백은 독특하고 친근한 화풍으로 세상을 풍자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2009년부터 틈틈히 그려왔던 디지털 추상화 200여편 중 50여점을 전시한다.

단순히 디지털 방식의 추상화 작업이 아니라 기존 디지털 작업방식에 전통적 그림액자를 결합해 대중에게 소박하게 다가갈 계획이다.

김 화백은 최근 '땅콩 회항'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사건을 거론하며 "이제 '갑'의 시대인 갑오년이 가고 '을'의 시대인 을미년을 맞았다. 미술품 경매에 나온 유명 화가들의 명화를 보면서 화화 작품이 결코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수년간 작업해온 100% 디지털 회화 작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가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회화 방식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며 "무한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방식은 미술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작가는 이번 전시의 부제를 '내 그림은 1원'이라고 달았다. /김민준기자

가이(윤도현)과 걸(전미도)가 부르는 'Falling Slowly'.

아름다운 음악 로맨스

뮤지컬 '원스' 화려함 없지만 관객과 신명난 호흡…예술의전당 공연

2006년 국내에 개봉된 영화 '원스'를 관람한 관객이라면 현재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에서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원스'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다.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시종일관 서정적인 음악이 흐르는 영화 '원스'는 청소기 수리공으로 일하는 거리 음악사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꽃을 파는 체코 이민자의 소박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2007년 아카데미 어워드 주제가상, 선댄스 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했고, 국내에서도 상영관이 채 20개도 되지 않았지만 독립영화 사상 최초로 누적 관객수 20만명을 돌파했다. 영화의 대표곡 '폴링 슬로우리(Falling Slowly)'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전설의 명곡이 됐다.

영화에 뿌리를 둔 뮤지컬 '원스'는 2012년 3월 브로드웨이에 진출해 독창적인 연출과 진솔한 스토리를 담았다는 찬사를 받으며 토니상 베스트 뮤지컬상 등 8개 부문을 석권했다. 브로드웨이에서의 성공은 이듬해 영국 웨스트엔드 공연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올리비에상 2개 부문을 수상하며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올해 한국 공연은 윤도현·이창희 (Guy 역), 전미도·박지연 (Girl 역) 등 주인공들과 10여 명의 앙상블이 참여했다. 5개월이 넘는 오디션 경쟁을 펼쳐 선발된 이들은 무대 위에서 연기와 노래, 춤, 연주까지 모두 소화한다.

각자 하나씩 악기를 든 배우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무대에서 관객과 호흡하며 발소리까지 악기로 만들어 버린다. 화려함이나 진한 로맨스는 없지만 무대에 퍼지는 음악과 배우들의 열연이 관객을 신명나게 한다.

뮤지컬 '원스'를 관람하고 싶은 관객은 공연 시작 전 미리 공연장으로 들어갈 것을 권한다. 본 공연이 시작하기 전 배우들이 프리쇼 형식으로 신나는 연주를 하며 관객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공연은 3월 29일까지 이어진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김향기·김새론 '아역 투톱' 재결합

광복70주년 특집 출연…'여왕의 교실' 이후 재회

대세 아역배우 김향기(사진 왼쪽)·김새론(오른쪽)이 재회했다.

두 사람은 광복 70주년 KBS1 특집극 (제목 미정)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2013년 MBC '여왕의 교실' 이후 두 번째로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됐다.

광복 70주년 특집극은 일제 수탈 속 가난이 지긋지긋했던 최종분(김향기)과 그가 동경했던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동네 친구 강영애(김새론)의 우정을 이야기한다.

성인 배우 못지 않은 연기력으로 작품마다 호평 받는 두 사람이 출연한다는 소식에 특집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KBS 측은 "광복 70주년 특집극에서는 최종분과 강영애의 이야기를 통해 아픈 역사, 그 시대를 견뎌낸 사람들을 되새겨보고자 한다"며 "김향기와 김새론이 의미 있는 연기를 해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복 70주년 특집극은 '비밀' 유보라 작가, '드라마스페셜-연우의 여름' 이나정 감독이 제작한다. 내달 28일과 3월1일 오후 10시30분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윤석화 자선콘서트 '사계' 수익금 전액 미혼모 위해

연극배우 윤석화(사진)가 국내입양기관과 미혼모 자립을 위한 자선콘서트를 개최한다.

윤석화는 2003년 아들 수민을 입양한 이후 자선공연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사계')를 꾸준히 열고 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사계' 무대는 가수 이문세, 배우 황정민, 기타리스트 함춘호 등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수익금 전액은 국내입양기금 기부와 탄자니아 호프스쿨(Hope Shcool)에게 전달된다. 다음달 13~14일 강남구 압구정동 BBCH홀. /김지민기자 langkim@

씨엔블루·AOA '남매'됐다

예능 '용감한 가족'…이문식·심혜진도 출연

밴드 씨엔블루 민혁·그룹 AOA 설현이 남매가 됐다.

KBS2 새 예능프로그램 '용감한 가족'에서 두 사람은 아이돌 출신 남매로 프로그램의 활력을 불어 넣을 예정이다.

민혁은 20일 여의도 KBS 신관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실제로도 여동생을 갖고 싶었다. 감독이 '가족 구성원 중 누가 있었으면 좋겠냐'고 물어서 여동생이 이야기했다"며 "막상 여동생이 생겼는데 어떻게 대해야 할 지 몰랐다. 설현이 귀엽고 예쁜 행동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대해 줬다"고 말했다.

설현은 이날 "오빠가 촬영 중 많이 챙겨줘 든든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예능 경험이 부족해 부담됐지만 촬영을 시작한 후부터는 방송을 신경 쓰지 않게 됐다"며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 특히 민낯이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여 기대감을 높였다.

'용감한 가족'은 이문식·심혜진·박명수·최정원·민혁·설현이 가족이 돼 생활하는 상황 리얼 버라이어티다. 이들은 전세계 특색 있는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본다. 첫 번째 장소는 캄보디아 톤레사프 호수에 있는 수상 가옥이다.

이문식은 '용감한 가족'의 가장으로 활약한다. 그는 이날 "가족에 방점을 찍고 촬영했다"며 "단순한 예능이 아닌 가족간 소통 부재로 생기는 문제점을 다루면서 전달하려는 감동이 있다.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거라 생각했다"고 출연 이유를 전했다.

심혜진도 예능에서 자주 만날 수 없는 배우다. 그는 "스스로 즐거워지고 싶었다"며 "'용감한 가족'은 낯선 사람들이 모여 가족이 되는 것 자체가 '용감함'이다"라고 프로그램의 의미를 설명했다. 23일 오후 11시10분 첫 방송.

/전효진기자 jeonhj89@

한화 훈련장에 망치·배드민턴 라켓 등장

김성근 감독 '이색 훈련' 눈길…"실전 투입 가능한 몸 상태 만들기 위해"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김성근 감독이 '이색 훈련'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일본 고치에서 시작한 한화 스프링캠프에서는 커다란 망치와 배드민턴 라켓 등 야구와 관련 없어 보이는 도구들이 훈련 보조장비로 사용되고 있다.

망치는 타자들을 위한 훈련 메뉴다. 커다란 망치를 휘둘러 못을 박듯이 땅에 내리친다. 배드민턴 라켓은 투수들이 들고 휘두르는 훈련용도로 사용된다.

망치와 배드민턴 라켓을 활용한 훈련법은 김성근 감독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김 감독은 과거 SK와 독립구단 고양 원더스 등에서 선수들을 지도할 때에도 망치와 배드민턴 라켓은 물론 곡괭이, 빗자루 등을 이용해 독특한 훈련을 선보였다.

한화 이글스 투수 이동걸이 19일 일본 고치에서 진행 중인 스프링캠프에서 배드민턴 라켓을 이용한 독특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구는 달라도 근본적인 운동 원리는 야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착안해 수시로 새로운 훈련법을 찾아온 김성근 감독의 고민의 산물이다.

망치로 내려치거나 곡괭이로 땅을 파는 타자들의 훈련은 하체와 허리를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타격 밸런스를 안정시키고 손목과 팔꿈치를 강화하는 효과를 낸다. 가벼운 배드민턴 라켓을 휘두르는 특수 훈련은 어깨와 팔꿈치의 손상을 줄이며 투구 밸런스를 잡도록 돕는다.

배팅 케이지 옆 아령도 한화 이글스의 캠프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 풍경이다. 타격 연습을 마친 선수들이 바로 아령을 들며 근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런 이색 훈련들의 목표는 명확하다. 조기에 실전 투입이 가능한 몸 상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성근 감독은 캠프 초반부터 연습경기를 치르며 경기력을 고쳐나가는 방식을 선호한다.

한화는 이달 28일부터 홍백전을 시작하고 1차 캠프 중반을 넘어가는 내달 초에는 일본 현지의 2군 팀과 연습 경기를 벌일 예정이다.

한화의 한 관계자는 "예정된 일정대로라면 평소보다 일찍 실전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킹캉' 강정호 내달 플로리다행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계약한 내야수 강정호(28)가 내달 10일 소속팀의 스프링캠프가 마련되는 미국 플로리다 주 브래든턴으로 향한다.

강정호는 친정팀인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스프링캠프가 차려진 미국 애리조나 주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사흘째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는 19일(현지시간) "일찍 브래든턴으로 이동해 메이저리그 적응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 있는 넥센의 스프링캠프에서 사흘째 훈련 중인 강정호. /연합뉴스

파이리츠 전 선수단 훈련은 내달 24일 열린다. 투수와 포수는 그에 앞서 18일 소집된다. 강정호는 이들보다 캠프에 서둘러 도착해 몸을 푸는 셈이다.

강정호는 "팀 관계자에게 내셔널리그 투수들의 자료를 뽑아달라고 요청했다"며 "브래든턴으로 이동해 곧바로 투수들의 유형을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빠른 볼, 빠른 변화구를 잘 칠 수 있도록 적응에 신경 쓸 예정"이라며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지금(체중 96kg)보다 더 근육을 찌우지 않고 몸 안에 있는 잔 근육을 부분적으로 더 잘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정호는 피츠버그 팬과 지역 언론으로부터 '킹캉(킹콩 강정호)'이라는 새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그는 "현지 팬들에게 한 번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경기를 열정적으로 하는 선수라는 이미지를 안기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장병호기자

8강전 앞둔 한국 '옐로카드' 비상

주전 선수들 경고 1회씩

오는 22일 우즈베키스탄과의 2015 호주 아시안컵 8강전을 앞두고 있는 한국 축구 대표팀에 '옐로카드' 경계령이 떨어졌다. 부상과 피로 때문에 선수층이 얇아진 만큼 옐로카드 누적이 팀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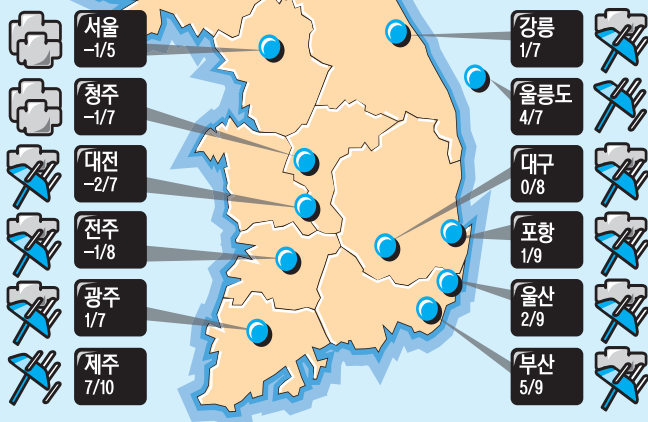
한국은 현재 차두리(FC서울), 김창수(가시와 레이솔), 장현수(광저우 푸리), 남태희(레퀴야), 한교원(전북 현대)이 경고 한 장씩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선수는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에서 옐로카드를 받으면 한국이 이겼을 때 4강전에 출전할 수 없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이번 대회에서 경고가 두 차례 누적된 선수들이 두 번째 옐로카드를 받은 다음 경기에 결장하도록 제재한다. 악성 파울이나 비신사적 플레이 때문에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당한 선수도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문제는 현재 경고 1회씩을 받은 태극전사들 모두 자기 포지션에서 주전이나 알토란 같은 조커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슈틸리케호의 사정을 지켜볼 때 옐로카드에 대한 우려는 지뢰밭을 걷는 분위기를 보인다.

한편 한 차례 옐로카드는 8강전이 끝난 뒤 소멸되기 때문에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을 무사히 버티면 4강 이후 총력전에 날개를 달 수 있다.

/장병호기자

지난 13일 호주 캔버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호주 아시안컵 A조 조별리그 2차전 한국 대 쿠웨이트 경기에서 경고를 받은 차두리. /연합뉴스

'막내' KT 최고연봉 이대형 동결된 3억원

1군 무대 데뷔를 앞둔 프로야구 제10구단 KT 위즈가 올 시즌 연봉 협상을 마무리했다.

20일 구단 관계자는 "올 시즌 외국인 선수를 제외한 KT의 최고 연봉자는 '슈퍼소닉' 이대형(32·사진)으로 3억원에 도장을 찍었다"고 밝혔다.

최고 인상률은 자유계약(FA)으로 입단한 내야수 박경수(31)의 156%다. 그는 지난해 9000만원에서 올해 1억4000만원 오른 2억3000만원을 받는다.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는 이대형과 박경수를 비롯해 김사율(2억원), 김상현(1억6000만원), 박기혁(1억5000만원), 장성호(1억원) 등 6명이다.

특별지명으로 입단한 이대형, 김상현은 연봉이 동결됐고 FA 김사율은 5000만원 인상, 박기혁은 8000만원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 장성호는 종전 1억4000만원에서 4000만원 삭감돼 1억원에 턱걸이했다.

KT 선수단의 총 연봉은 2014년 9억3400만원에서 올해 28억39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지난해엔 인원이 35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61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FA 등 고액 연봉자도 늘었기 때문이다.

/김민준기자 mjkim@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3		8	
			8				3	6
				6		5	4	
1		2		4				
3		6		5		2		4
				2		3		8
	6	4		3				
7	1				6			
	2		7			9		

	4				1			
	7				6	2	1	
2		1			9	7		
5			3	2				
	2						8	
				1	7			3
		9	1			8		2
	3	6	7				5	
			5				3	

스도쿠 정답

6	9	5	4	7	3	1	8	2
2	4	1	8	9	5	7	3	6
8	3	7	2	6	1	5	4	9
1	8	2	3	4	9	6	5	7
3	7	6	1	5	8	2	9	4
4	5	9	6	2	7	3	1	8
9	6	4	5	3	2	8	7	1
7	1	3	9	8	6	4	2	5
5	2	8	7	1	4	9	6	3

9	4	5	2	7	1	3	6	8
3	7	8	4	5	6	2	1	9
2	6	1	8	3	9	7	4	5
5	1	7	3	2	8	4	9	6
6	2	3	9	4	5	1	8	7
8	9	4	6	1	7	5	2	3
4	5	9	1	6	3	8	7	2
1	3	6	7	8	2	9	5	4
7	8	2	5	9	4	6	3	1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캣우먼

임경선 칼럼니스트
askcatwoman@empal.com

30대 중반 미혼, 출산 늦어질까 걱정 쉽지 않은 양육환경 신중히 선택을

Q Hey 캣우먼!
서른 중반의 여성입니다. 가족들은 이젠 제게 결혼 얘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살 위의 언니가 제게 심각하게 "넌 아기를 안 가지고 싶냐"고 묻더군요.

"결혼적령기는 없을지 몰라도 출산적령기는 있는 거야.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늙어서 자식이 없으면 얼마나 쓸쓸한데."

언니는 몇년 불임으로 고생하다가 겨우 예쁜 조카를 얻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다가 정색하고 말하는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쫓기는 기분입니다. 평생 혼자 살다가 혼자 아무도 봐주는 이 없이 고독사 할까 두렵네요. /제주감귤

A Hey 제주감귤!
물론 결혼은 일흔 살에도 할 수 있지만 출산은 마흔을 넘어가면 쉽지가 않죠.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쉽게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러가지죠. 교육·육아 환경·경제적 문제, 아니면 애초에 결혼에 대한 의문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일단 낳으면 어떻게든 돼'라는 낙천적인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는 둘만 낳아 잘 키우자고 했다가 이제는 많이 나을수록 애국자라 합니다. 출산율이나 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의 존중받아야 마땅할 개인으로서 자식을 가지는 일에 기쁨을 느끼면 낳으면 되고, 아니면 안 낳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구에게도 비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어어, 하다가 자연스레 출산을 못하는 나이가 되면 그건 그것대로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 또한 결과적으로 하나의 선택이 된 것 뿐입니다. 외롭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누구나가 받아들여야 할 운명입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당신과 나 포함, 자식이 있건 없건 노년의 고독과 쓸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입니다. /캣우먼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결혼상대는 언제쯤, 재물운도 궁금 사업기반 닦아놓으면 배필감 생겨

Q 이 보다더 남자 80년 7월 27일 음력 오전 11시 5분

선생님 사주풀이를 자주 보는 애독자입니다.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은 많이 없지만 연애는 하고 싶은데 연애상대가 잘 나타나질 않네요. 언제쯤이면 연애다운 연애를 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잘 만난다고 하면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조그만 디저트카페를 동업으로 하는데 가게를 팔고 2개로 할까? 아니면 조금 다른 디저트를 할까? 고민 중인데요. 올해 재물 운은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A 애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속담 중에 '호랑이는 피할 수 있어도 사주팔자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필자가 수년간 상담을 해오면서 느낀바가 바로 사주8자와 운의 흐름에 따라 희로애락, 흥망성쇠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맞는 다는 것에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성과 돈을 재성(財星)이라고 하는데 실재 현물인 돈이 먼저 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여자가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하는 돈을 벌어 기반을 닦아 놓으니 여자가 들어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당분간은 하시는 일에 전념을 해야 하겠지요.

사업 운은 2017년까지 현재하는 동업자와 꾸준히 이어가면서 새롭게 시작하거나 투자하는 것은 준비하되 2016년 4월이 지나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십시오. 그 시기가 지나가면 디저트분도 사회적으로 또 다른 색다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동업을 할 때는 인간적인 친밀함보다는 상호 부족한 면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능력이나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분담하며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완하는 지혜로움을 가져야 성공적인 동업이 이루어지며 공동 목표인 성공창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손해를 본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결별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결별은 서로에게 손실이 따릅니다.

인연은 좋은 편이나 비밀스러운 암합(暗合:몰래 숨겨 놓은 것)이 있어 이성 간에 혼탁 상으로 풍파를 겪을 수 있음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인 사

■고용노동부
◇ 전보 ▲ 기획조정실장 한창훈
■LIG투자증권
◇ 이사 승진 ▲ 기업금융팀 임태섭 ▲ SP팀장 강병구 ◇ 부장 승진 ▲ 기업분석팀 김윤상
■KB캐피탈
◇본부장 전보 ▲리스크관리본부 여신관리본부장 김영윤 ▲경영관리본부장 남병호 ▲ 정보보호본부장 윤영환
■판도라TV
▲ CMO(마케팅총괄책임자) 이장원 전무
■동부대우전자
◇ 부사장 승진 ▲ 구매본부장 김성범 ▲ 영업본부 국내영업총괄 김재현 ▲ 상품기획팀장 김혁표 ▲ 기획지원팀장 안병덕 ◇ 상무 선임 ▲ 냉기연구소장 위대성 ▲ 세탁기 마케팅2팀장 이경철 ▲ 중동영업총괄 이상엽 ▲ 법무팀장 이홍범 ▲ 동부대우전자서비스 김영혁
■법제처
◇서기관 파견 ▲KDI 안병준
■부산도시공사
▲ 혁신개발본부장 김학곤 ▲ 재무팀장 김남균 ▲ 기획실 황보경 ▲ 도시재생팀장 채병호 ▲ 투자개발실장 임채규 ▲ 주택관리단 주거복지 파트리더 최규수 ▲ 복귀건축사업팀 건축관리 파트리더 우동권 ▲ 동부산사업팀 장현호 ▲ 토목사업팀 토목 파트리더 송원섭 ▲기획실 김민정
■전라남도
◇ 5급 승진 ▲ 정책기획관실 오수미 ▲ 정보화담당관실 정금숙 ▲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박석현 ▲ 중소기업과 장방진 ▲ 시도지사협의회 김종현 ▲ 스포츠산업과 강학 ▲ 해양수산과학원 조한기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이근교 ▲ 서울사무소 양국진, 김용덕 ▲ 국토교통부 파견 정한로 ▲ 스포츠산업과 이호범 ▲ 지역발전위원회 파견 이종현, 김형수 ▲ 식품유통과 이덕준 ▲ 축산위생사업소 류철혁 ▲ 동부지역본부 박용면 ▲ 보건의료과 김영두 ▲ 식품안전과 조용수 ▲ 안전총괄과 주승식 ▲ 소방본부 손재형 ▲ 보건의료과 김병태 ▲ 지역경제과 변태욱 ▲ 농업기술원 박문영 ▲ 산림자원연구소 오득실 ▲ F1대회지원담당관실 강희상 ▲ 규제개혁추진단 김선주 ▲ 정책기획관실 손명도 ▲ 세정담당관실 최석남 ▲ 법무통계담당관실 정양조 ▲ 인재양성과 강하춘 ▲ 일자리정책실 최강훈 ▲ 공무원교육원 김동현 ▲ 동부지역본부 서상칠 ▲ 도로관리사업소 최현석 ▲ 도립도서관 노영환 ▲ 도립대학교 고광명 ▲ 창조산업과 나영수 ▲ 중소기업지원센터파견 김평권 ▲ 공무원교육원 문인기 ▲ 광양시 정홍기 ▲ 장성군 정광선 ▲ 진도군 김봉균 ▲ 신안군 이길환 ▲ 영암군 김영우 ▲ 함평군 유호규 ▲ 목포시 김형수 ▲ 보성군 양창열 ▲ 교육 김형찬, 조희송, 김현미, 이재성, 이병철, 한재경, 김기평, 김병성, 이영춘, 나은주, 유재석, 양회필, 김병호, 강정화, 서종분, 조동호, 조명수, 정찬수

부 고

▲ 김석기씨 별세, 김동영(TDM 이사)·동수(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동규(아주캐피탈 홍보마케팅팀 차장)씨 부친상 = 19일 오후 9시, 서울 순천향대학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1일 오전 6시. (02)792-1420
▲ 김영기씨 별세, 김호정(에쓰오일 부장)씨 부친상 = 20일 오전, 순천향대 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 발인 22일 오전 9시. (02)797-4444
▲ 김재룡(보은 회남초등학교 교감)씨 별세 = 20일 오전 8시40분,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2일 오전 7시30분. (042)257-4863
▲ 서해균씨 별세, 서진홍(전 씨티은행 이사)·진태(경희대 명예교수)·진호(서울대 교수)·진옥(기하엔지니어링) 부친상 = 19일 오후 9시, 분당서울대병원 201호, 발인 22일 오전 7시. (031)787-1501
▲ 이유순씨 별세, 김용옥(축산업)·용철(SBS 보도국 국제부장)씨 모친상 = 19일, 충북 진천 제일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8시. (043)537-4442
▲ 최순택씨 별세, 공원식(전 경북도관광개발공사 사장)씨 모친상 = 19일 오후, 포항 시민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23일 오전 9시. 010-3296-3371

세월호 승무원 항소심 시작

2주에 한 번 공판 후 4월 28일 선고 예정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이 1심 선고 2개월만에 법정에 섰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은 공판준비 절차로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이유서를 근거로 1심의 살인·살인미수 무죄 판단과 관련해 선장 등의 퇴선 명령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수난구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 혐의는 추가 심리 없이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몇 가지 사실 관계도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1회 공판을 시작으로 2주마다 공판을 열고 4월 28일 선고하겠다는 재판 진행계획도 공지했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살인죄 등을 추가로 심리해 오는 4월 선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편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이 선장 등 7명이 이 자리에 자발적으로 출석했으며 검찰 측에서는 1심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 5명이 그대로 출석했다.

또 이날 재판에 앞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무원 등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서장원 포천시장 기소의견 송치

'성추행 무마 의혹'

서장원 포천시장. /연합뉴스

금품을 주고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장원(56·새누리당) 포천시장이 2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

포천경찰서는 이날 무고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서 시장과 서 시장 측근으로부터 돈을 받고 경찰에서 거짓진술을 한 혐의(무고 방조)를 받는 A(52·여)씨를 기소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A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의 성추문 얘기가 퍼지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는데 이때 A씨가 거짓진술을 하도록 해 수사기관을 속인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경찰은 이 대가로 현금 9000만원과 9000만원짜리 차용증이 서 시장의 측근을 통해 A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14일 의정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포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으며 서 시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보건의료 기요틴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단식

국민건강 외면하는
관치의료 반대한다

추위 속 단식 농성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앞에 마련된 천막에서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에 반대하는 단식에 돌입했다. 의협은 규제 기요틴은 물론 의료 영리화 정책에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의정부 화재' 발화 추정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영장

'의정부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은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15분께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한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다. 또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있다.

'의정부 화재' 현장. /연합뉴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려는데 키가 잘 빠지지 않자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였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부분에 맞춰 오토바이를 정밀 감식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결혼 미끼 여성들 농락한 스타 영어강사 구속

거액 뜯어낸 뒤 다른 여자와 결혼

결혼을 미끼로 20대 여성들에게 거액을 뜯어낸 스타강사 출신 영어학원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유명 어학원 강사이자 본인의 영어학원도 운영 중인 임모(2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와 회사원 A(26·여)씨는 지난해 8월 모바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진전됐고 임씨는 A씨에게 직접 결혼자금을 마련하자고 설득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돈을 우려내기 위해 사회경험이 부족한 A씨를 속이는 과정이었다. 임씨는 자신이 미국 영주권자라 대출이 안된다며 A씨에게 대출중개업자를 소개했으며 처음 만났던 지난해 8월에만 1억원 이상을 송금받았다.

/연합뉴스

또 임씨는 이후에도 각종 투자에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A씨가 마이너스 대출과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받도록 종용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0월까지 임씨에게 2억783만원을 보냈고 A씨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임씨는 결별을 선언했다.

그렇지만 정작 임씨는 지난해 9월 마포구의 한 교회에서 B(31·여)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미 A씨를 만날 당시 영어학습 동호회에서 만난 B씨와 교제 중이었고 B씨와 스위스로 떠난 신혼여행에서도 A씨의 신용카드로 경비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외에도 20대 여성 한 명이 5100만원을 뜯기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정황을 파악했다.

구속된 임씨는 경찰에서 "2013년 7월 영어학원을 열었지만 교육청 인가를 받지 못해 영업이 악화됐고 A씨에게서 돈을 받아 부채를 충당했다"고 진술했다. /황재용기자

'용산참사' 6주기 추모제 열려

20일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용산참사' 6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용산참사 6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 회원들과 희생자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의 묘에 술을 따르고 헌화를 하며 이들을 추모했다.

또 추모위원회는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25일에는 용산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두개의 문2' 제작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모제 진행을 맡은 박래군 용산참사 6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용산참사의 책임자였던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퇴진과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등을 통해 국가폭력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용산 재개발 보상 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들이 경찰과 대치하다 화재로 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사건이다. /황재용기자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
천연미네랄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알칼리환원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